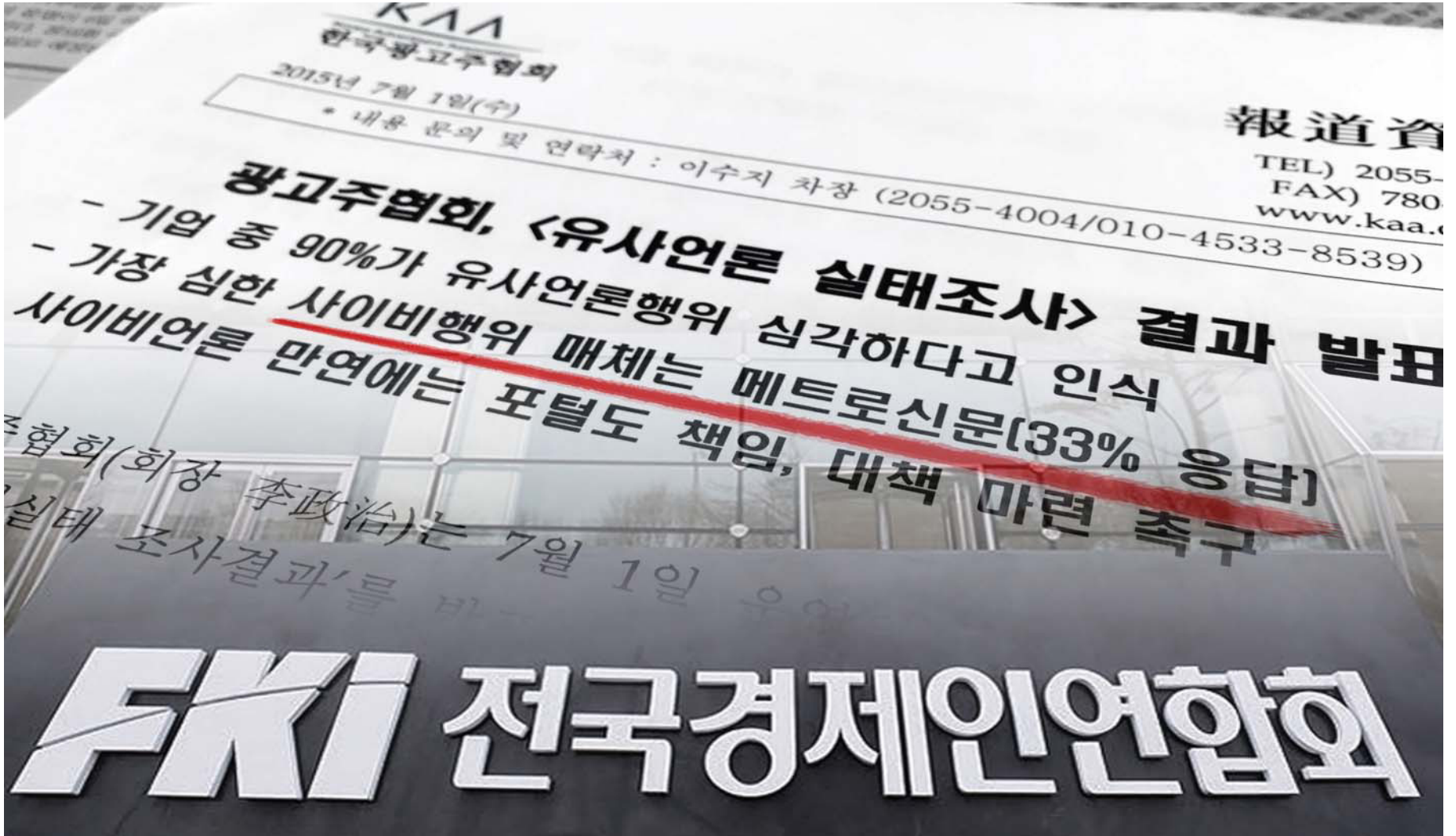
News p/2

"광고주협회, 포털에 입김"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제3249호 www.metroseoul.co.kr

News p/3

'L투자' 배당금은 어디로?

1일 한국광고주협회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합성

재벌 비판하면 사이비

전경련 예하 광고주협회 "메트로가 최악 유사언론"
한국리서치 "의뢰한 광고주협회가 왜곡해 발표했다"

전경련 예하 조직인 한국광고주협회가 가장 심각한 유사언론행위를 저지르는 사이비언론으로 메트로신문을 지목했다. 기업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가 근거였다. 하지만 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는 조사내용이 광고주협회의 발표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가 조사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야기다.

광고주협회는 1일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결과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중 90%가 유사언론행위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며 "가장 심한 사이비 행위 매체는 메트로신문(33% 응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사언론행위의 원인은 포털의 유사언론과의 기사제휴가 59.8%로 가장 높았으며 근절 방안으로 포털에서 유사언론 퇴출 및 기사제휴 중단이 23.0%로 가장 높았다"고 했다.

이어 "유사언론행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된 메트로신문의 경우 금년 들어 1면에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기업 CEO 사진을 노출시키는 등 총 60여건(전체기사의 55% 수준)의 기업 관련 부정 기사를 게재하는 전형적인 유사언론 유형을 보였다"며 "특히 발행부수 5만부, 인터넷 트래픽 659위로 영향력과 광고효과가 미미한 매체임에도 광고 수주를 위해 의도적인 악성기사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 메트로신문을 포함해 유사언론행위가 심한 것으로 지적된 상위 10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건전한 저널리즘의 확립과 광고시장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광고주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메트로신문이 33.0%로 가장 유사언론행위가 심하다고 했지만 스스로 제시한 5가지 중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메트로신문의 유사언론행위 행태에 대한 설명은 광고주협회의 자체 주장이다. 또 광고주협회는 유사언론행위 상위 10개 언론사 중 메트로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언론사의 이름은 한곳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사를 직접 실시한 한국리서치 담당자는 "기업들에게 어떤 피해 경험이 있는지를 직접 적게 하면서 유사언론행위나 사이비 언론이라는 말은 전혀 질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유사언론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내용을 넣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했다.

이어 "광고주협회에서 (의뢰 당시) 매체와 행위, 원인과 방지대책의 보기를 질문에서 모두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제가 '편파적일 수 있다. 의도적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모두 직접 조사대상자가 작성하도록 했다"며 "광고주협회의 초안에 있는 보기를 모두 없앴다"고 했다.

또 "광고주협회가 자체조사한 결과라며 20여개 매체만을 조사대상으로 넣으라고 요구했지만, 제가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니냐'고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주협회는 500대 기업에서 랜덤으로 (임의로 선택해서) 조사대상을 선정해 먼저 응답하는 1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했지만 이도 '광고주협회와 뜻이 맞는 기업만 응답할 거 아니냐'고 반대해 100개씩 모두 돌려보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했다.

그는 "응답한 100개의 기업 중 13개 기업이 피해 경험이 없다고 했지만 광고주협회는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하자고 요구했다"며 "제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 모두 포함시켜 33%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트로가 (가장 높게) 나오길래 깜짝 놀랐다"며 "저희 회사가 중간에 끼어 난처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강세준 메트로신문 편집국장은 "우리가 현대차, 신세계, 삼성 등을 비판하고 CEO의 시진을 크게 실은 적도 있다. 하지만 준법의식의 결여 등 재벌 3세 체제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짚는 것은 현시대 언론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삼성 합병 건만 해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 이를 지적하는 것이 왜 사이비 언론이냐"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한줄 News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 상환 만기일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을 넘기면서 부도상태에 빠졌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아테네 의회 앞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리스가 선진국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부채를 갚지 못한 국가가 됐다.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공동으로 제안한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안과 관련해 광고주협회 쪽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민병호 청와네 뉴미디어정책비서관이 미디어오늘에 말했다.

▲ 일본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신칸센 차량 방화사건이 참사로 번지는 걸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차례를 밟을 것으로 보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과 박근혜법 손질에 나선다.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헌 위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 한국 롯데의 실질적 지배사인 일본 국적 'L투자회사'가 최근 7년간 국내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총 1200억여원을 현금 배당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선 전 회장 측이 증인신청을 두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 탤런트 이미숙이 2009년 사망한 고 장자연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벌인 민사상 분쟁에서 승소했다.

▲ 2만원 이하인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을 개당 2억원에 팔았다고 부풀려 1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 차액을 챙긴 혐의로 송 모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했다.

▲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진검승부가 오는 17일 예정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에서 진행된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금융개혁을 추진한 이래 60개 정도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절반 정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사명을 변경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 그리스 디폴트와 미국 금리인상이 소각상태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삼성그룹 바이오 계열사들이 '2025년 매출 2조·이익 1조'라는 사업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 호샤 한국지엠 사장이 글로벌 경차 시장 내 신형 스파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 다음카카오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에도 실시간 버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SK텔레콤은 29종 101개에 달하는 요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19종 64개로 간소화한다.

▲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티켓을 거머쥐는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가 내달 10일 결정된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배우 황정민과 유아인이 영화 '베테랑'에서 형사와 재벌3세 관계로 첫 호흡을 맞춘다.

▲ NC 다이노스 김태군 선수가 올 시즌 포수로는 유일하게 전 경기 선발 출전에 도전한다.

▲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네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 국내 도자기 업계 1위 한국도자기가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

▲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4245억원 규모의 서울 고덕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공사를 수주했다. /정리=윤정원기자 garden@

"광고주협회 포털에 입김"

민병호 비서관 "포털이 사이비 언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정책비서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공동으로 제안한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안과 관련해 "사이비 언론은 포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광고주협회 쪽의 입김이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1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민 비서관은 지난 26일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휴평가위 히스토리를 보면 모 신문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했던 모양인데 자기들 입장에선 어뷰징을 많이 하니까 프레임 자체를 '사이비 언론' 퇴출로 잡고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제휴평가위에서 언론사 심사와 어뷰징 관리를 할 텐데 사실 어뷰징은 큰 신문들이 많이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지금 언론사에 어뷰징을 하지마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 것이며 포털이 여기에 칼을 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사이비 언론 퇴출'과 '과도한 어뷰징 근절'을 제휴평가위 제안의 명분으로 내걸었다. 언론이 자체 구성한 제휴평가위 결정에 따라 사이비로 지목된 언론과 어뷰징 매체를 포털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제안의 골자다.

민 비서관은 청와대가 사이비 언론 퇴출을 명분으로 포털 장악에 나섰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10일자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기명칼럼이 의혹의 발단이었다.

황 주간은 '김영란법 대신 허문도법'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기업들을 괴롭히고 건강한 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는 듣보잡 정리 작업을 청와대 비서관 한 명과 두 포털의 주문을 받은 언론단체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황 주간은 기업을 괴롭히는 듣보잡을 사이비 언론이라고 했다. 사이비 언론 정리 작업에 나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두 포털이 인터넷 사이비 언론에 공동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그 폐해가 방치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청와대 민 비서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민 비서관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대형언론이 자신의 어뷰징 문제를 가리기 위해 사이비 언론 문제로 제휴평가위의 방향을 틀었고, 여기에 광고주협회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되레 제기한 셈이다.

이와 관련,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 제휴평가위, 약인가 독인가'라는 긴급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특정 기업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광고 탈취 행위를 하는 사이비 언론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어뷰징"이라며 "현재 상태로 제휴평가위가 구성되면 특정 언론이 다른 특정 언론에 대한 탄압 도구로 제휴평가위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도 어뷰징 언론을 퇴출할 수 있는데 메이저라 못 건드린다"며 "포털은 책임전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뉴스메이커가 된 유승민 거부권 정국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히려 지명도를 높이는 호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등과 함께 대표최고위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헌법 위반' 비판한 문재인은 '당헌 위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헌 위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나서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힐책한 바 있다.

1일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발표를 강행한데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유 최고의원은 "인선 발표 강행은 사무총장 등 당3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 당헌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 8일 개정된 당헌 54조 2항은 사무총장 및 전략홍보본부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위임한 것이지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더구나 원내대표와의 원만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인선발표를 하도록 위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유 최고의원은 당직 인선 발표를 무효로 할 것을 요청하며 "당 대표가 조속히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습안을 만들고 당헌 절차에 따라서 당직 인사로 불거진 당내 불신과 분란을 수습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고위원회의에 나갈 수 없었던 건 진언을 드렸음에도 (인선)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비노 진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의 내년 총선 공천을 담당할 사무총장에 범친노로 분류되는 최 사무총장 인선을 강행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L투자’ 국내 배당금 1200억원 어디로?

<한국 롯데그룹 최대주주>

법인주소 일본 도쿄 주택가…전화하면 홋카이도서 받아
대표이사 신격호 등만 확인…“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

호텔롯데를 통해 ‘한국 롯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국적사 ‘L투자회사’가 최근 7년간 국내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총 1200억여원을 현금 배당금 받아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인 ‘L투자회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내부지분 등 지배구조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12개로 나눠져 있는 L투자회사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호텔롯데·롯데로지스틱스·부산롯데호텔 3곳에서만 약 1200억원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L투자회사는 이 3곳 외에도 20개 내외의 롯데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있어 실제로 국내에서 배당받아 챙긴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열사별 배당금을 보면 한국 롯데의 실질적 지배회사인 호텔롯데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54억5000만원, 총 1081억원의 현금배당을 챙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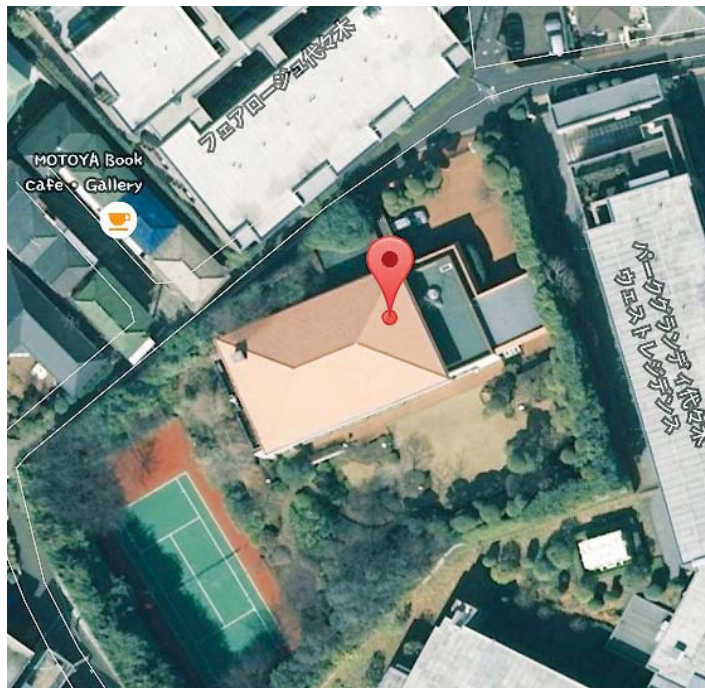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는 2009년부터 6년간 연평균 6억4700만원, 총 38억8200만원을 받았다. 부산롯데호텔로부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3억 6200만원, 총 68억1200만원의 현금배당을 챙겨왔다.

L투자회사가 이들 세 회사로부터 가져간 연 평균 현금배당금은 약 233억원에 달한다.

롯데그룹의 소유구조나 대표이사 및 이사진 현황에 미루어 봤을 때 L투자회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악하고 있고, 국내 계열사에서 흘러들어간 배당금도 신 총괄회장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L투자회사의 내용은 일본 법무국이 발행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주소와 대표이사 및 이사진, 자본금 등만 확인 가능하고 소유지분과 내부 배당내역 등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한 회계사는 “L투자회사는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롯데로지스틱스와 롯데알미늄 측에 최대주주인 L제2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나중에 L제2투자회사의 법인 주소만 전자공시를 통해 공개했다.

기자가 롯데로지스틱스와 롯데알미늄의 최대주주인 도쿄 소재 L제2투자회사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된 곳은 홋카이도의 롯데상사였다. 전화를 받은 롯데상사 직원은 “L제2투자회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인등기부 상 주소가 일본 도쿄 시부야구 하츠다이 2-25-31번지로 돼있는 ‘L제2투자회사’. 하지만 이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도쿄가 아닌 홋카이도 롯데상사로 연결된다. /구글어스 캡쳐

롯데그룹 홍보팀 관계자도 “L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4·16연대 소속 회원들과 세월호 유족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인양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 세월호법 직접 손보고 박근혜법도 추진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차례를 밟을 것으로 보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과 박근혜법 손질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추려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을 부정하는 만큼 국회에서 시행령 범위도 아예 입법단계부터 직접 손보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가 1일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선정한 25개 안에는 세월호법 시행령도 포함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별법 제18조는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에 대해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제2조에서 “사무처에 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4조부터 7조까지 사무처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고 있어 야당 측은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 추진에도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장은 그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공동발의한 바 있다. 1998년 12월 공동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 2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각부 장관은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부분을 따르도록 의무가 지어졌다”며 “의무를 아예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 개정법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대구 지하철 교훈으로 신칸센 참사 막았다

일본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신칸센 차량 방화사건이 참사로 번지는 걸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도카이도 신칸센 화재로 불에 타 손실을 입은 것은 열차 한량의 전방 부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 담당자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세워왔던 대책 덕분에 불이 열차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성은 한국에서 2003년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신칸센 차량의 내화 기준을 끌어 올렸다.

신칸센을 운행하는 일본국유철도는 1960년대부터 차량 내부의 천정재나 시트의 내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도 1987년 국철이 민영화될 때 법령에서 내화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당시는 과실로 인한 담배나 잡지가 불타는 정도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이 같은 내화 기준을 대폭 손보는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성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지하철이나 신칸센 등 외부로 피신하기 어려운 열차 내에서의 방화에 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에어컨의 통풍구 등을 고열에 잘 녹지 않는 소재로 만들고 차량과 차량 사이의 문을 상시 잠기는 구조로 만들었다. 2004년 12월 강화된 내화기준의 골자다.

전날 신칸센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복사판이었지만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가나가와현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현내 구간을 주행 중이던 도카이도 신칸센 ‘노조미 225호’의 선두 차량에서 71세의 남성이 폴리탱크에서 기름으로 보이는 액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분신 자살 기도로 보이는 이 사고의 피해자는 남성 자신과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이 전부였다. 나머지 피해자는 26명의 부상자들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2003년 2월 18일 오전 10시께 대구시내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50대의 남성이 신병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1079호 전동차의 3호차를 타고 가다가 인화물질이 든 피티병 2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객실에 던졌다. 불은 순식간에 전동차의 6개 객실에 번졌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입 중이던 전동차 6량에도 옮겨 붙었다. 불은 상·하행 전동차 12량을 모두 태웠다.

당시 방화로 192명이 죽고, 1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방화범인 남성은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당시 조사에서 전동차의 불량 내장재 사용, 지하철 직원의 직무태만 및 훈련 부족 등이 대규모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송병형기자 bhsong@

‘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사기로 대출받은 대표 구속

수출 가격을 1만배나 부풀려 1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사용한 사기 수법과 구조가 판박이어서 ‘제2 모뉴엘 사건’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금형 오퍼·수출업체 H사 조모(56) 대표를 관세청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도운 H사 자금담당과장 유모(34)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원가가 2만원 이하인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을 일본 업체에 개당 2억원에 팔았다고 부풀려 세관에 수출 신고를 했다. 조 대표는 이렇게 얻은 수출채권으로 시중 은행 5곳으로부터 모두 10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 대표는 수출채권 상환일이 다가오면 허위 수출 신고를 반복하는 등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표가 갚지 못한 돈은 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가 물건을 팔았다고 한 일본 업체 역시 자녀 이름으로 만든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이렇게 챙긴 대출금 중 29억원 가량을 미국으로 빼돌려 고급 빌라와 외제차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3조2000억원대 무역 사기 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대출을 해준 은행들만 손실을 입게 됐다.

/연미란기자

선종구 재판서 ‘증인신청 논쟁’

<前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서 검찰 vs 변호인 법리공방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선 전 회장 측이 증인신청을 두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 회장에 대한 배임과 증여세 포탈, 그림 매매 등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유경선 유진기업 회장과 국세청 직원, 경매 연구 전문가 등 8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하이마트 2차 매각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바 있다.

이날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배임 수재 의혹과 관련해 선 전 회장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1심에서) 서류 증거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이미 115쪽에 달하는 상세 진술을 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검찰은 언론보도로 일부 증인의 사생활에 피해가 간 부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이 “(증인이) 1심 재판 중 (언론)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 1심도 해당 증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증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그 정도 입증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부적절해서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논란이 된 일부 증인 신청에 대해 “피고인과 증인이 어떤 관계인지는 따질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불러서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 프라이버시가 우려되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논란이 된 증인과 유 회장, 경매 전문가, 역삼세무소·국세청 직원 등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첫 임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 37명이 신임 법관으로 첫 임용됐다.

대법원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로스쿨 출신 가운데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경력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로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 중 남성 21명(57%), 여성 16명(43%)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30명(81%)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관은 7명(19%)이었다. 변호사 중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7명, 국선전담변호사 7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3명 순이다.

비서울권 로스쿨 졸업생은 17명(46%)이다.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 로스쿨 졸업생은 21명(57%)이다.

이들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4명,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각 3명, 경찰대·중앙대 각 2명 등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도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전남대 각 4명, 이화여대·충남대 각 3명, 경희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제주대가 각 2명씩이다.

법학 전공자는 14명(38%),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자는 23명(62%)로 비전공자가 더 많았다.

특히 이들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 임용된 사람들이 27명(7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목영준(60·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딸도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다. 목 전 재판관의 딸은 2012년 4월부터 2년간 로클럭으로 근무하고, 지난해 3월부터 서울의 한 로펌에 소속돼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이번 경력법관에 합격했다.

이날 양승태(67·2기) 대법원장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러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그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이다. 우리 사회는 새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진 장점이 여러분을 통해 표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은 이날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뒤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홍원기자 hong@

세계 광고축제 ‘뉴욕페스티벌’ 여주서 개막 1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도자세상 반달미술관에서 세계적인 광고축제인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 광고축제는 남한강변에 있는 썬밸리호텔에서 세미나와 포럼, 강연회가 열리고 여주도자세상 반달미술관, 도자명품관, 세종국악당, 여주도서관, 여성회관 등지에서 전시회, 시사회, 상영회가 5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成 자료 은닉’ 측근들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檢 “중대한 사업 방해 행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증거 은닉·인멸 행위는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지난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개인정보유출, 용역업체 탓"

농협·국민·롯데 첫 재판서 책임 전가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농협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KCB 박모씨의 범죄행위"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KB국민카드 측도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고용자인 KCB에 있다. 검찰은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KCB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박씨가 일한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주체는 카드회사들"이라며 책임 회피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박씨가 2012년~2013년 카드사 3곳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고객 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KCB의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FDS) 개발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던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 USB 저장장치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놓지 않는 등 유출사고를 막지 못해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유출된 정보는 NH농협카드가 7201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는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이 빠져나갔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와 카드한도액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생화학무기 탄저균'반입 규탄대회 좋은대한민국만들기 대학생운동본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미8군 앞에서 탄저균 무단반입 실험 규탄 집회를 갖고 탄저균 무단반입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檢, 신원그룹·오너 겨냥 수사 확대

'탈세·횡령·회생 사기' 혐의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박 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수백억원대의 빚을 불법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박 회장 일가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박 회장 등을 고발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여겨진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2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숨겨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원그룹 임직원들과 박 회장 일가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탈세·횡령액과 은닉재산의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미란기자

재산 분할·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도 가능할까

생활 법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 관계를 10년 동안 유지한 김모(43)씨와 이모(40·여)씨. 두사람은 그동안 금슬 좋기로 주변에 소문났지만 최근 김씨의 잦은 외도로 이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별할 땐 서로 남남이 되는 법. 이씨는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전제, 이 관계 파탄의 책임을 김씨에게 물으며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다. 반면 김씨는 "단순한 동거관계였을 뿐 혼인의사는 없었다"고 맞섰다.

두사람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살았던 두 남녀가 갈라설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 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사실혼 관계를 파기시킨 상대방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귀속불명재산의 부부 공유추정 등이 적용되고, 혼인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결국 법원은 김씨와 이씨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이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이 5년 이상 함께 살며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한 점 ▲가족은 물론 이웃에게도 자신들을 '부부'라고 소개한 점 ▲명절을 함께 보내고 상대방 부모의 묘소에도 같이 다녀온 점 등에 비춰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탤런트 이미숙, 손해배상 책임 면해

'장자연 문건'관련 前소속사에 승소

탤런트 이미숙(55·사진)씨가 2009년 사망한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벌인 민사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일 이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46)씨가 이씨와 사망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이씨가 2009년 1월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망한 장씨에게 성접대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지난해 7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사망한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씨는 장씨가 사망하기 전 호야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씨는 이 회사로의 이적을 추진했다. 김씨는 이때 이씨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 계약 위반기간에 대한 손해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장씨에게 성접대 문건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씨는 또 장씨가 자살한 것은 허위로 작성한 성접대 문건이 비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3년 7월 이씨에게 1억2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주총 표대결 변수는

ISS·지배구조원·국민연금 판단 촉각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유보 '불씨'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의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진검승부'가 오는 17일 예정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로 넘어갔다. 삼성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아직 합병 성공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일단 삼성은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합병비율'과 '승계용 합병'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어느 정도 희석시켰다는 판단이다.

삼성은 합병 '낙관론'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판결 후 삼성물산은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합병안 통과까지는 여러 고비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ISS(기관투자자서비스)의 의견이 최대 관건이다.

세계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ISS 보고서가 삼성에 불리하게 나오면, 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의결권을 결정하는 외국 투자자들의 지분을 얻기 힘들다. ISS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일 오후께 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엘리엇을 포함한 삼성물산의 외국인 지분은 33% 정도다.

아울러 한국기업구조원(지배구조원)이 판단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배구조원은 이번 주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찬반여부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원에 합병사안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배구조원의 판단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삼성물산 지분 10.15%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합병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이날 수요사장단 회의를 마친 뒤"국민연금을 잘 설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주주가 잘 되기 위해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심집중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를 15일 남겨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하나의 불씨는 자사주다. 법원은 엘리엇이 신청한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10일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인 KCC에 매각했다. 현재 KCC를 포함한 삼성의 확실한 우호지분은 19.95%로 파악된다.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삼성은 표 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여기에 엘리엇의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엘리엇은 법원 판결 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엘리엇은 "법원이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게 매각한 것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전국 월세 7개월째 제자리걸음

전국 주거용 부동산의 월세 가격이 7개월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6월 8개 시·도 주거용 부동산의 월세가격이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모두 월세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세물건 부족에 따른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으로 보합장을 연출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 전체는 변동이 없었지만 한강 이북지역은 한정된 수요로 인해 0.1% 하락했다. 반면 한강 이남지역은 0.1%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은 수급불균형이 계속되며 0.1%씩 뒷걸음질쳤다.

지방광역시에서는 울산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월세 수요 증가로 0.1% 올랐다. 하지만 부산과 광주는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각각 0.1% 내렸다. 대전과 대구는 월세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은 보합으로, 그 외 유형은 하락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모두 0.1%씩 빠졌다.

월세가격동향조사 결과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저금리 여파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준전세 등 새로운 임대차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편된 월세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표본 수가 3000개에서 2만5000개로, 조사지역이 8개 시·도시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한국도자기, 불황에 78년 만에 공장 가동 중단

재고 소진위한 결정
다음달 공장 재가동

국내 도자기 업계 1위 한국도자기(대표 김영신)가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 표면적으로는 공장 설비 재정비이지만 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자기는 7월 한달 간 충북 청주의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공장 가동 중단은 지난 1943년 청주 공장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기간 영업직 직원들을 제외한 생산직 직원들은 유급 휴가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 조치는 경영 악화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직원들이 휴직하고 정부가 이들에게 기존 임금의 50~70%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도자기 측은 비수기에 맞춰

한국도자기 HANKOOK CHINAWARE

재고 소진을 위한 결정일 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8월 10일부터는 차질없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언론에 마치 큰 일처럼 비춰졌는데, 오래 전부터 공장 가동을 한 달간 쉬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며 "6~8월은 혼수나 명절 특수가 없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판매할 재고는 충분한 상태이며 한 달 공장 문을 닫아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도 시행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낸 것은 작은 회사다 보니 국가 지원책을 이용해보자는 취지였으며 직원 감축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72년 만에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업무 효율화와 공장 설비 재정비이지만 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템을 보면 매출액이 2010년 517억원, 2011년 489억원, 2012년 466억원, 2013년 404억원, 2014년 384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하락세다.

영업 손실액도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2010년 44억원에서 지난해 7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국내 도자기 시장이 정체기인 것과 맞물린다. 최근 혼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중국산 저가 제품과 해외 브랜드 제품이 난립하면서 기존 업체의 먹거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혼수를 할 때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고 시장에는 중국산부터 해외 유명브랜드까지 다양하다 보니 이 같은 시장 상황에 한국도자기가 타격을 입은 것 같다"며 "특히 한국도자기의 경우 내수 비중이 높고 국내 생산 시스템이다 보니 인건비 등 유지비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KB금융그룹

"금융개혁 현장 체감도 낮아 속도감 낼 것"

'금융개혁 전도사' 임종룡號 출범 100일

현장방문 37회·점검반 1450명
소통 중시 추진과제보완 속도
"우리은행 매각방안 곧 마련"

서울부터 제주까지 37회 현장방문, 금융개혁회의 5차례, 현장점검반146개사 방문, 1450명 면담, 1934건 제안 수렴.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은 금융위원회의 중간 성적표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금융개혁을 추진한 이래 60개 정도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절반 정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느슨함없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간담회·규제개혁안 내놔…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할 것"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과 '현장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다.

실제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원을 방문, 금융당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과 소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졌다. 임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기구는 금융사 건의를 수렴하는 현장 점검반이다.

그는 여기서 수렴하는 건의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성의있게 수용하겠다는 3대 원칙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현장점검반은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 146여곳을 방문해 20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접수하기도 했다. 또 현장답변과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1081건을 회신해 47%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거래소 개편(7월)과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강화(8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8월), 금융교육 및 투자자보호 강화(9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 "현장·소통 중시"…가계부채·우리은행 민영화 숙제 남아

임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400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개혁과제 등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개선 계획은 조기에 구체화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개혁 핵심과제인 금융규제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부처 협업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과 '소통'이 임종룡표 금융개혁을 위한 키워드다.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지난 3월24일 핀테크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일정에 없던 은행 방문을 통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과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 등 파격적인 금융 개혁안과 서민금융 지원방안도 내놨다.

물론 아직 미해결된 숙제도 많다. 메르스와 저금리로 위축된 국내 경제부터 여전히 낮은 현장 체감도, 가계부채 해결과 핀테크·기술금융 활성화 문제, 우리은행 민영화 등도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꼽힌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5~6월 동안 수요조사를 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적자금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문제는 "예비인가신청서를 받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 신청 시 거부할 근거도 없다"며 "다만 (심사시) 노사간 합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하반기, 영업점 운영체계 재정비"

기업금융·자산관리
지역 거점 점포 집중

윤종규(사진) KB국민은행장은 1일 "하반기 영업점 운영체계 재정비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7월 정기 조회사에서 "금융시장의 격변 속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고객 중심, 현장 중심의 경영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점주권 특성에 따른 ▲영업점 체제 개편 ▲창구 인력 강화 및 재배치 ▲워크 다이어트(Work-diet) ▲창구 레이아웃(Lay-out) 개선 ▲상담전화 유입량 감소 노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 행장은 "업무량 증가의 원인이 되어온 영업점의 혼잡한 창구부터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고객에게 직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창구 인력을 재배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혼잡도가 높은 점포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며 "개인과 기업고객에 대한 예금, 대출 업무도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망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윤 행장은 "현재 33개 지역본부는 고객의 실제 생활권에 기반을 둔 지역별 거점 중심 영업망으로 재편성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1047개 영업점은 점주권 환경과 고객기반에 특화된 영업망 체계로 전환해 능동적인 방식으로 고객밀착 영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개별 점포가 갖기 어려운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등의 전문역량을 지역의 거점 점포에 집중키로 했다.

그는 "지역 거점 중심의 KB영업망이 정착되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도 안착되고 영업점 생산성 논란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NH농협금융, 시니어 브랜드 'ALL100' 선포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좌측 세 번째)은 1일 시니어 대표브랜드 'ALL100 플랜'을 선포했다. (사진 좌측부터)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김주하 NH농협은행 은행장,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허권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김용복 NH농협생명 사장, 김학현 NH농협손해보험 사장. /농협금융 제공

외환銀, 여름철 바캉스 맞아 환전 이벤트

외환은행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로엔 바캉스! 환전은 외환은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일정 금액 이상 환전한 모든 고객에게 자양강장제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외환은행 모바일환전 홈페이지에서 최대 70% 환전우대가 가능한 '나눔광장 쿠폰번호'를 받은 후 500불이상 사이버환전을 하면 된다.

이후 자동으로 박카스 모바일 상품권과 무료 여행자보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추첨을 통해 100만원(1명)의 휴가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참여고객은 현재 진행중인 '2015 행복한 여행! 환전 페스티벌'에도 자동으로 응모된다. /백아란기자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 여전히 높아

신학용 "자율적 금리 문제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 확인 필요"

예금금리에 비해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마이너스 통장의 평균 금리가 5.2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은행 17곳의 신규대출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예금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간 것과 대조된다.

실제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1.75%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내림에 따라 주요 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잇달아 인하한 결과다. 반면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의 평균금리가 7.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씨티은행이 7.39%, SC은행이 6.59%로 높게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에서는 국민은행이 평균 4.8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협은행은 4.16%로 낮았다. 신한은행은 4.17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도 은행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은행은 3년 전(2012년 1분기)에 비해 금리를 1.4%포인트 낮추는데 그쳤다. 산업은행은 1.63%포인트, 씨티은행은 1.92%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높았던 SC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의 평균 금리를 4.36%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 역시 4.2%포인트를 내렸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 신용대출처럼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책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일반 신용대출과 별도로 분류돼 공시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은행별로 금리가 제각각인 이유를 소비자가 알긴 어렵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소비자들이 금리 적용 기준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주택도시기금 전담 중추기관으로 도약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출범

주택은 물론 도시재생까지 다양한 보증·서비스 제공해 새로운 플랫폼 갖춰 성장할 것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김정훈·이헌승·서용교 국회의원, 김규옥 부산시 부시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은 1993년 설립 이후 2014년까지 916만 가구에 739조원의 주택 관련 보증을 맡아 왔다.

그러다 지난해 주택전문 보증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됐고, 1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됐다.

공식 영문 사명도 '주택과 도시, 사람을 품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새로운 미션에 맞게 HUG(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로 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종전 주택공급 관련 보증 중심의 제한된 역할에서 탈피, 기금 운용을 통해 도시재생 분야까지 지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택도시금융 중추기관으로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출범식에서 '삶의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주택도시금융 리더'라는 새로운 공사 비전 'Vision 2025'를 선포하고, 공사 발전을 위한 경영가치 체계를 확립했다.

김선덕 사장은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실행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왼쪽부터)김선규 공사 전 사장, 박성표 공사 전 사장, 박민우 부산국토관리청장, 김선덕 공사 사장, 김규옥 부산 부시장, 양호윤 공사 노조위원장, 권오창 공사 전 사장이 1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식을 개최하고 커팅식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국내 최고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힘써 주고,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을 마련해 기금의 개편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덕 사장은 이날 한국주택협회 회장(박창민)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김문경) 등 주택업계 대표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MOU)도 체결했다. 고객의 관점에서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목적에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으로 정부와 함께 주택업계, 도시재생 및 부동산개발업계,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택도시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시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입·임차 등 주택수요자 유형별로 다양화된 수요에 따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전·월세시장 안정의 대표 상품인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취급은행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대상 확대와 주택구입자금보증 보증료율 인하 및 한도 조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보증사각지대에 있던 지역주택조합, 사회적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을 도입하는 것을 강구 중이다. 임대주택종합금융보증의 시공자 자격요건 완화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찾고 있다.

도시 분야로의 역할을 확대해 도시재생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건설산업 전문가 출신답게 공사의 주택도시 분야 R&D 역량 강화를 필수적으로 보고, 자체 '주택도시연구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광교 아이파크' 1순위 마감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공급한 '광교 아이파크'가 청약 결과 평균 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방문자들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제공

부동산 여름철 비수기는 옛말… 분양 봇물

7~8월 수도권 4만가구 전년대비 2.5배나 늘어

올해 부동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비수기인 7~8월에도 수도권에서 대거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단지, 마곡지구, 위례 및 광교 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 청약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 물량도 대거 포함됐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7~8월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임대 제외)는 51곳, 4만30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6429가구) 대비 2.5배가량 늘어난 물량이다.

이 기간 서울에서는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13곳, 1만5668가구가 공급된다.

대표적인 분양 단지는 대림산업이 성동구 옥수동 옥수13구역에 짓는 e편한세상 옥수다. 이달 분양 예정인 이 단지는 전용면적 53~120㎡ 1976가구 중 11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옥수동 일대 마지막 재개발 사업지로,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인접하고 단지 서쪽으로 매봉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고덕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9~108㎡ 687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250가구다.

이 밖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을 재건축 단지(8월, 일반분양분 1635가구), SH공사의 마곡지구 공공분양 4곳(8월, 520가구)도 공급된다.

인천과 경기권은 위례, 광교, 미사, 송도, 송산 등 공공택지에서 38곳, 2만534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미사강변도시 A23블록에 짓는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를 7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3~101㎡ 487가구다.

보미종합건설은 위례신도시 C2-1블록에 짓는 위례 보미리즌빌을 이달에 분양한다. 지상 15층 4개동에 전용 96㎡ 131가구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부천3차 아이파크' 견본주택 3일 개관

2017년 8월 입주 예정

현대산업개발 계열 아이앤콘스는 오는 3일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6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부천3차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25층, 2개동, 184가구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59㎡ 137가구, 70㎡ 47가구다.

아파트 내부는 남향 위주의 동배치에 발코니 확장을 통한 서비스 면적을 최대로 제공해 실사용공간을 극대화했다. 필로티 설계를 통해 단지 전체의 개방감 및 바람길을 확보하고 1층 가구가 없어 저층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했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아이앤콘스는 견본주택 개관을 기념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계약과 상관없이 1순위 청약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가방과 지갑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개관 첫 주말 방문객들에게는 발광다이오드(LED) TV, 제습기, 전자렌지, 믹서기 등의 가전제품을 제공한다.

부천3차 아이파크 조감도. /현대산업개발 제공

견본주택은 부천시청역 인근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5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김형석기자

대림산업·현대건설, 4245억 규모 재건축 수주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은 4245억원 규모의 서울 고덕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공시했다.

고덕3단지 재건축조합은 고덕3단지 아파트 자리에 9~34층 아파트 41동(4066세대)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의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의 지분은 50대 50이다. 주관사는 현대건설이다.

/김형석기자

빙그레, 무더위에 '방그레'… 주가도 신바람

| 마켓인사이트 |

매출 증가·가격 인상 효과 주가 8만4000원대로 껑충

실적 개선·수출 성장세 기대 증권가, 하반기 장밋빛 전망

'빙그레'가 우호적인 기상환경과 제품 가격 인상 등의 호재로 여름철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 5월말부터 시작된 때이른 더위와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빙그레는 메로나, 비비빅, 더위사냥 등 장수 아이스크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빙그레의 주가 흐름도 눈에 띈다. 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 6만6900원까지 하락하다 제품 가격인상과 무더위로 8만4000원대까지 껑충 뛰었다.

증권가에서도 빙그레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김승 SK증권 연구원은 "빙과 부문은 4월에 있었던 가격인상 효과와 5월말부터 시작된 이른 더위 등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4~5% 성장할 전망이다. 호상·드링크 부문에서도 기저효과와 비용 통제를 통한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광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빙과 매출은 올해 3월 바(Bar) 타입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연간 약 3%의 가격효과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원가 측면에서는 원유 가격이 지

빙그레는 마블의 어벤져스 캐릭터를 활용한 '더위사냥 파우치' 2종을 출시했다. /빙그레 제공

난해와 같이 변화는 거의 없지만, 부자재 경비가 줄어 지난해보다 영업환경이 낫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원은 "중국 유음료 수출은 1분기까지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중국 현지 마케팅 강화로 2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수출 확대를 위한 영업과 경영전략 변화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빙그레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8362억원, 영업이익은 23.5% 증가한 51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빙그레의 핵심인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9% 성장한 1112억원이 예상된다"면서 "바(bar)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3월 말을 기점으로 15~16% 인상되면서 전체 빙과 평균 판매가는 약 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공유와 빙과류의 매출 증가에는 우호적인 기상 여건이 필수적이다.

2분기 평균 강우량(91.9㎜)이 지난 6년 평균(101.3㎜)을 하회하면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

홍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강원도 일부 지역에 올해 내린 비의 양이 평년 대비 60%에 불과해 빙과 판매량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음료는 18도, 빙과는 23도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데, 2분기 기상 여건이 우호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의미있는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서영화 교보증권 연구원은 "빙그레가 다른 아이스크림 업체보다 냉동부문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 42.1%로 국내 상장업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스테디셀러 제품들의 수출 모멘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유안타證, 300억 규모 파생결합상품 공모

유안타증권이 오는 3일까지 다양한 조건과 수익구조로 설계된 ELB 1종, ELS 3종을 총 3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ELB 47호는 CSI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만기 1년 6개월의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CSI300지수가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100%)의 125%를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있으면 2%를 지급한다. 12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100%)의 125% 이하이면 최대 18.75%를 지급한다.

ELS 3397, 3398호는 만기 3년의 스텝다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ELS 3397호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각 최초기준가격(100%)의 85%(6,12,18개월), 80%(24,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4.50%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ELS 3398호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ELS 3399호는 만기 3년에 매 1개월마다 HSCEI 지수, EUROSTOXX50지수의 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100%)의 55%이상이면 매월 0.45%(연5.40%)의 절대수익을 지급하는 쿠폰지급식 스텝다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100만원 단위)으로 유안타증권 전국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김민지기자

거래소, 해외지수·통화 ETN 5종 신규 상장

한국거래소가 오는 3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하는 해외 지수와 통화 관련 상장지수증권(ETN) 5개 종목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ETN은 국내외 주식, 채권, 상품, 변동성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다.

신한금융투자가 상장하는 4개 종목은 미국 다우지수에 기반한 다우지수선물과 전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선물에 각각 정방향과 역방향(인버스)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의 '트루(TRUE) 인버스 차이나H ETN(H)'은 중국H주 인버스로는 첫 상품이다. /김민지기자

글로벌 증시, 그렉시트 우려에도 느긋… 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불확실성 이미 정점 찍어 韓, 글로벌 상승세 편승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관건

글로벌 경제가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와 미국 금리인상 이슈 등에도 느긋하다. '불확실성'이 이미 정점을 찍고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이 투자심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우리나라가 편승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기업들의 2분기 실적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69포인트(1.14%) 오른 2097.89에 장을 마쳤다. 전날 2070선을 회복한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상승, 장중 한때는 2100.34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18.40포인트(2.48%) 상승한 760.67을 기록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날 대비 0.48% 올랐고, 대만 가권지수도 0.56% 상승했다.

◆그리스 사태 영향 '제한적'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이미 그리스 악재가 지수에 충분히 반영된 데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낙관론이 호재였다.

그리스는 오는 5일 구제금융 수용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찬성표가 많으면 유로존에 남게 되고, 반대가 많으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길을 걷게 된다.

KOSPI 2,097.89 ▲23.69 (1.14%)

코스피가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소식에도 2090선으로 뛰어 올랐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69(1.14%) 상승한 2097.89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다만 그리스 사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던지 한국 등 세계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창목 NH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 "그리스 우려감은 이미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됐다"며 "그리스 사태는 장기 이슈가 돼가고 있고 단기적인 시장 쇼크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 2Q 실적에 '주목'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관심은 국내 증시에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7일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실적가 이던스가 국내 증시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23개 증권사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치(27일 기준) 평균은 매출 52조9332억원, 영업이익 7조2483억원이다. 가장 높게 집계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6조8290억원, 7조7930억원이다. 최저치는 각각 50조3940억원과 7조70억원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7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면 이는 지난해 2분기(7조1900억원) 이후 정확히 1년 만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7조원대 영업이익에 실망을 표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51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7조3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 부문은 갤럭시S6 출하량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으며 네트워크 사업부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돼 실적은 시장 기대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대증권도 "IM 부문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당초 기대에 미달할 것"이라며 2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시장 기대치였던 7조5000억원에 못 미치는 7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삼성전자 주가도 하락세다.

갤럭시S6 기대감에 지난 3월 18일 종가기준 150만3000원을 기록한 주가는 지난달 130만원선을 반납하고 현재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도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기대치가 하향되고 하반기 이익 정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최근 동사 주가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배기자 bobae@

삼성바이오 계열사 '합병' 지원 팔 걷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우호지분 확보 위해 사업현황·비전 첫 공개 나서
합병시 단일 최대주주 '바이오로직스' 성장 강조

삼성그룹 바이오 계열사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필요한 우호지분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사업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경우 통합 법인이 단일 최대주주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동력을 강조해 우호 주주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일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관계자 90여명을 송도 바이오 캠퍼스로 초청,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각 회사의 사업추진 경과와 바이오 사업 전망, 삼성의 바이오 사업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근 준공한 바이오로직스 2공장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이뤄졌다.

2011년 4월 출범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을, 이듬해 2월 출범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제품 개발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수준인 15만ℓ 규모의 바이오리액터(세포배양기) 2공장 건설을 지난 2월 완료, 내년 1분기 중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2공장의 현재 계약된 물량이 전체 생산능력의 70%에 달한다. 3만ℓ 규모의 1공장은 2013년 7월 시험생산을 시작, 올해부터 상업생산에 돌입했다.

삼성그룹 바이오 계열사들이 1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송도플랜트에서 바이오사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현황과 비전을 공개했다.

김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적 바이오 기업인 미국 BMS, 스위스 로슈(Roche)사와 3건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5개 이상의 바이오제약사와 수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1년 출범 후 지난 4년간 사이 고민했던 리스크들이 해소되고 운영, 수주 부분도 해소됐다. 남은 건 목표를 향한 성장"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내에 15만ℓ 규모의 3공장 착공을 검토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4공장을 증설, 40만ℓ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항암제, 당뇨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6개 제품에 대한 개발, 임상, 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내년에 자가면역치료제 '엔브렐' 시밀러 제품의 유럽·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전세계에 6개 제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고 대표는 "내년 상반기에는 나스닥 상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동안 월가의 IB(투자은행)들을 일일이 만나왔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며"고 전했다.

/인천=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LG, 대학생 140명에 세계 최고 현장체험 제공

LG글로벌챌린지 발대식
보고서 수상팀엔 입사자격

LG는 1일 여의도 LG트윈타워 대강당에서 국내 최초·최장수 대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 'LG글로벌챌린저'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LG글로벌챌린저는 대학(원)생들이 탐방 주제와 국가에 대한 제약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구본무 LG 회장을 비롯해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LG 최고경영진과 인사담당 임원, LG 글로벌챌린저로 선발된 대학생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LG는 인문사회·경제경영·자연과학·정보통신·공학·문화예술·글로벌 등 7개 분야에서 총 35개 팀 140명의 대학(원)생들을 LG글로벌챌린저로 선발했다.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대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 'LG글로벌챌린저' 발대식에서 구본무 LG 회장(왼쪽)이 대학생들에게 성공적인 탐방을 기원하는 엠블렘을 전달하고 있다. /LG그룹 제공

LG글로벌챌린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여름방학기간 중 약 2주간에 걸쳐 세계 23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탐방활동을 펼친다.

LG는 탐방에 필요한 항공료와 활동비를 지원하며, 탐방 후 보고서 심사를 통해 6개 수상 팀 24명에 대해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입사자격을, 재학생들에게는 인턴자격을 부여한다.

LG는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분야에 선발된 5개 팀 20명에게는 국내 탐방을 지원한다. 탐방결과가 우수한 외국인 대학생 1개 팀에게는 LG 계열사 인턴 자격도 부여한다.

/임은정기자 eunj71@

7월, 쏘나타 사면 선물 와르르

현대차, 출시 30주년 이벤트
가격 할인·케이크 증정 등

현대차는 쏘나타 출시 30주년 기념 고객 감사 페스티벌을 7월 한 달간 연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7월 한 달간 쏘나타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쏘나타 30주년 고객 감사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달 쏘나타 구매 고객에게 ▲쏘나타 패밀리 가격 할인 ▲쏘나타 케이크 증정 ▲블루링크 서비스 평생 무료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당첨 이벤트도 운영한다.

현대차는 본인을 포함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이전에 쏘나타를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차량 가격 30만원 할인을 해주는 '쏘나타 패밀리 가격 할인 이벤트'도 벌인다.

또한 쏘나타 구매 고객에게 '쏘나타 케이크'가 제공된다.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거나 사고 시 자동으로 긴급 구조를 지원하는 기능이 탑재된 '블루링크' 서비스를 차량 보유 기간 동안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전시장 방문 100% 당첨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는 편의점 커피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한편 추첨을 통해 쏘나타(1명), 노트북(3명), 게임기(10명), 미니카(3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현대차 측은 "쏘나타가 7세대를 거쳐 출시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객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쏘나타의 새로운 3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LG '울트라 올레드 TV' 美·유럽서 최고 TV 선정

LG전자는 울트라 올레드 TV가 세계 최대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최고 TV로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미국 AV전문 유통업체 '밸류 일렉트로닉스'가 주관하는 TV 화질 비교 평가에서 65형 LG 울트라 올레드 TV(65EG9600)가 1위를 차지하며 '킹 오브 TV(King of TV)'에 선정됐다.

LG전자는 지난해 올레드 TV(55EC9300)로 1위에 오른데 이어 2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팀 알레시(왼쪽) LG전자 미국법인 신상품 개발 담당이 LG 울트라 올레드 TV가 'King of TV'로 선정된 뒤 밸류 일렉트로닉스 로버트 존 회장에게 축하받고 있다. /LG전자 제공

LG 울트라 올레드 TV의 화질에 대한 호평은 유럽에서도 이어졌다.

지난주 독일에서 열린 '플러스 엑스 어워드(Plus X Award)'에서 LG전자는 77형 LG 울트라 올레드 TV(77EC980V)로 '홈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분야에서 '최고 혁신 브랜드(Most Innovative Brand of the Year)'로 선정됐다. /조한진기자

현대車, 中서 판매만족도 2년 연속 1위

현대자동차의 중국 현지 합작법인 베이징현대가 시장 조사업체 제이디파워의 '2015 중국 판매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베이징현대는 조사대상 71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800점이 넘는 812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이 점수는 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0년 이후 최고점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번 평가 결과는 최근 중국 토종업체들이 저가형 신모델을 쏟아내고 합자업체들의 판촉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얻은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가격 인하나 무리한 판촉경쟁에 뛰어들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와 판매, 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용기기자

'중량↓, 연비↑'… 신형 스파크 나왔다

한국지엠 중량 45kg 낮춰 주행효율 강화
전방충돌·차선이탈 경고 등 첨단기술 탑재

신형 스파크로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경차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자신한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1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신형 스파크 신차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샤 사장은 "뛰어난 디자인과 함께 편의사양을 대폭 적용했음에도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며 "한국지엠이 주도적으로 이 차를 개발해 창원공장에서 생산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한국 소비자에게 먼저 판매한다는 점도 뜻 깊다"며 "사장으로서 모든 차량 모델에 정이 가지만, 엔지니어로서 볼 때 이번 신형 스파크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경차 이상의 경차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신형 스파크는 8월 판매에 들어간다. 가격은 1015만~1499만원 대에 책정됐다.

신형 스파크에는 1.0리터 SGE 에코텍 엔진이 탑재됐다. 고밀도 설계와 3기통 다운사이징을 바탕으로 알루미늄 실린더 블록과 헤드를 채택해 기존 모델에 비해 9kg을 감량한 이 엔진은 향상된 효율과 풍부한 파워를 제공한다. 최대출력은 75마력, 최대토크는 9.7kg.m다. 엔진룸 중량 감소를 포함, 전체적으로 45kg의 무게를 덜어낸 덕분에 연비는 높아지고 주행 성능은 개선됐다. 특히 신형 스파크 3개 모델 중 에코 모델(수동변속기)은 복합연비 15.7km/ℓ로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실현했다. 이 모델에는 정차시 공회전을 방지하는 '스톱 앤드 스타트' 시스템이 적용됐다.

1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쉐보레 경차 신모델 '더 넥스트 스파크' 신차 발표회에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 겸 CEO(가운데)가 신차를 소개하고 있다.

신형 스파크는 기존 스파크 대비 확장된 휠베이스(2385㎜) 와 낮아진 전고(1475㎜)를 통해 공기 역학적인 유선형 디자인을 구현하면서 주행 효율을 개선했다.

실내는 낮춰진 전고에 따라 시트의 높이 또한 하향 조정돼 운전자와 차량의 일체감을 높였다.

다양한 색상으로 마감된 가죽 시트, 천연가죽 스티어링 휠,스마트 시동버튼은 세련미를 더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아날로그 클러스터는 다기능 디지털 그래픽 화면을 통해 차량 정보와 주행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화이트 LED 계기판을 적용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위치한 차세대 마이링크 시스템은 후방카메라 기능, 인포테인먼트 및 공조 시스템 제어를 지원한다.

7인치 고해상도 스크린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아이콘 배열, 터치스크린 조작 편의성 등이 제공된다.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더 넥스트 스파크는 내비게이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팟캐스트 감상 등을 지원한다. 운전석, 동반석 에어백 및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을 전 트림에 기본사양으로 적용했다.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 등 프리미엄 예방 안전 사양은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감지해 경고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삼성SDI, 美 듀크사에 리튬이온배터리 공급

전력용 ESS 프로젝트 수주

삼성SDI는 북미 발전사업자인 듀크에너지사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미국 GCN사와 상업용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력용ESS 프로젝트를 수주해 북미 ESS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58GW의 발전 능력을 가진 발전사업자인 듀크사와의 협력을 통해 북미 ESS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서부에 위치한 '노트리스 풍력발전소'에 설치된 납축배터리 ESS를 리튬이온배터리 ESS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다.

납축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낮아 부피가 크고 수명이 짧을 뿐 아니라 출력도 떨어진다.

노트리스 풍력발전소 전경. /삼성SDI 제공

이에 듀크사는 기존에 설치된 납축배터리를 리튬이온배터리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삼성SDI를 최종 공급자로 선정했다.

김우찬 삼성SDI ESS사업팀 전무는 "이번 수주는 삼성SDI가 보유한 기술과 품질,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최대 발전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ESS 1위 기업으로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에서도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6월 국내 완성차 5곳 판매 실적 현대만 '뒷걸음'

기아 등 4곳 전년比 증가

6월 국내 완성차 업체 5사 중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4사의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1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6만2802대, 해외 34만5224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총 40만8026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4.8% 증가했지만 해외 판매는 2.2%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해외 시장에서 국내공장 수출 11만2653대, 해외공장 판매 23만2571대 등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한 34만5224대를 판매했다.

국내공장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체 해외 판매는 줄었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를 비롯해 신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판촉 활동을 펼쳐 국내 시장 판매를 늘려 나가는 한편, 해외시장에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4만5010대, 해외 21만8917대 등 총 26만3927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쏘렌토를 비롯해 카니발, 모하비 등 레저용차량(RV) 차종들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했다. K시리즈와 봉고트럭 또한 판매 호조를 보였다.

해외 판매는 현지 수출 전략 차종 판매 확대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RV와 K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해외시장에서는 전략 차종의 판매가 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 1만2233대, 수출 4만2953대 등 총 5만5186대를 판매했다. 내수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0.8%, 9.3% 증가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내수 6753대, 수출 1만211대로 전년 동월 대비 47.9% 늘어난 총 1만6964대를 판매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내수 8420대, 수출 3952대를 포함 총 1만2372대를 판매했다.쌍용차는 티볼리 돌풍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10년 만에 월 최대 판매 실적인 8420대를 기록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네이버 폴라 "폴라팔찌 모으고 아이패드 받으세요"

내일로와 '#폴국열차' 이벤트

네이버의 관심사 사회관계망 서비스(iSNS)인 폴라는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내일로와 함께 방학시즌 기념 콜라보 프로모션 '#폴국열차'를 진행한다.

내일로 여정의 6개 인기 역에서 배포되는 한정판 폴라 팔찌를 모은 뒤 '#폴국열차' 해시태그를 사용해 인증 사진을 폴라에 올리면 추첨해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2명), 아이패드 미니(1명), 내일로 바우처(200명)를 증정한다.

폴라는 지난 달 22일에 누적다운로드 100만건을 넘어서고 웹과 앱을 합친 주간 이용자가 250만명을 돌파하면서 주타겟층인 젊은 이용자층을 조용히 흡수해 나가고 있다.

이용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폴라에서는 다양한 태그를 중심으로 꾸준히 새로운 이미지가 생산되고있다. /정문경기자 hm0108@

다음카카오, 버스정보 서비스 지역 확대

대구·경산도 실시간 확인

다음카카오가 실시간 시내버스 정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다음카카오는 다음 지도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의 실시간 시내버스 도착 예정 정보를 서비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대구 및 경산시의 시내버스, 대구와 경산시를 오가는 시외버스의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실시간 버스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지역.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다음 지도의 시내버스 정보 서비스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에 이어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남까지 확대하면서 전국 총 19개 지방자치단체로 늘어났다. /양성운기자 ysw@

'더 비틀 클럽 블랙 프라이데이' 참가하실 분~

폭스바겐코리아, 4일까지 모집

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10일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에서 열리는 '더 비틀 클럽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참가할 고객을 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 비틀 클럽 리미티드 에디션의 외관 컬러 중 하나인 딥 블랙 색상에서 영감을 얻은 공간 구성에 차량 전시, 파티, 이색 옥션, 라이브 공연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로 꾸며진다.

더 비틀 클럽 리미티드 에디션은 물론, 자동차 역사의 아이콘 오리지널 비틀까지 만나볼 수 있다.

참가 고객들은 버벌진트, 치타, 디제이 소다 등의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정용기기자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초대형 ICT 체험관 '티움 모바일' 첫 선

농구코트의 2.5배 면적 ICT기술 11개 체험가능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찾아가는 첨단 ICT 체험관 티움 모바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국가ICT 기술력 홍보 및 ICT꿈나무 육성을 위해 전국을 누비는 2차 대장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티움 모바일은 ICT 체험 기회가 부족한 벽오지 학생들을 찾아가는 이동형 체험관이라는 콘셉트로 지난해 8월 론칭했다. 10개월간 전국 12곳을 순회하며 정보격차 해소와 ICT인재 육성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SK텔레콤은 우주 정거장을 디자인 콘셉트로 농구코트 2.5배의 크기(총 면적 1,089㎡)에 달하는 초대형 이동형 체험관으로 티움 모바일을 업그레이드 했다.

기존 대비 65% 커진 규모의 티움 모바일에서는 ▲한국 이동통신 역사를 상징하는 휴대폰 30대의 벨소리 합연 '모바일 오케스트라' ▲근 미래에 적용될 첨단 기술 스마트홈, 스마트 축구장, 스마트팜, 스마트 스쿨 ▲미래 세계 여행 체험 시설 IoT열기구, 무인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는 4D라이더 등 ICT 기술기반 11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티움 모바일은 2015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인 이번 달 1~14일까지 2주간 광주 월드컵경기장 북문에 전시공간을 마련해 한국 ICT의 첨단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다. 티움 모바일 관람은 현장 예약을 통해, 선착순 하루 2000명까지 가능하다.

광주U대회 전시 이후에는 농어촌, 중소도시 방문 등 전국 순회를 통해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ICT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찾는 대형 행사에서 국가 ICT 역량을 홍보하는 체험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티움 모바일을 방문한 인원은 농어촌 작은 분교부터 범국가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까지 현재기준 누적 12만 여명이다. /정문경기자

티움 모바일 운영요원이 티움 모바일 외부 전경을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T요금제 64개로 간소화

SK텔레콤은 현재 29종 101개에 달하는 요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19종 64개로 간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LTE, 3G 처럼 다른 기술 방식과 피쳐폰, 스마트폰, 모뎀 등의 다양한 휴대폰 유형 기준에 따라 요금제가 복잡했다. 동일 기준 하에 2종 이상의 요금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고객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었다.

SK텔레콤은 비슷한 요금제를 혜택이 더 나은 요금제로 단일화하고 LTE 등 네트워크 서비스에 따른 요금제 구분을 없앤다. 아울러 요금제 구분 기준을 휴대전화 유형과 가입자 연령 정도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폐지되는 요금제는 팅 스마트·프리존 요금제, LTE 34~100 요금제, 무료음성 44~94 요금제, 3G 맞춤형 요금제 등이다. 기존 가입자는 폐지되는 요금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가입 중단 요금제 리스트 (8월 1일 이후)	
T Login 라이트·레귤러·프리미엄	PDA 데이터 슬림
링 스마트	링 프리존
실버 스마트 15	홀인원 손사랑34·홀인원 소리사랑34
LTE 34·42·52·62·72·85·100	무료음성Ⅱ44·54·64·79·94
LTE 맞춤형	3G 맞춤형

휴대전화 유형·가입자 연령 기준 요금제만 남겨

앞서 SK텔레콤은 그동안 T끼리 요금제,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밴드 데이터 요금제 등 기술 진화와 소비자의 무선통신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출시해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금제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2~5배 많은 수준"이라며 "쉽고 편리한 선택을 위해 요금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지난해 8월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1위 사업자의 요금제 수는 45개로 독일 26개, 미국 16개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C·미쓰이화학, 폴리우레탄 합작사 MCNS 출범

SKC와 일본 미쓰이화학이 체결한 폴리우레탄(PU) 합작사 MCNS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이 합작사는 연 매출 15억달러, 자산 11억달러 규모로 양사가 현물출자를 통해 각각 50%의 지분으로 SKC와 미쓰이화학이 공동경영한다.

합작사 본사는 서울에 있고 원기돈 SKC화학사업부문장과 이시마루 히로야스 미쓰이화학 우레탄사업본부장이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

합작사는 SKC의 폴리올 시스템 제품과 미쓰이화학의 폴리올, MDI, TDI, 시스템제품을 통합해 총 72만톤을 9개국 15개 생산거점에서 운영한다.

정 사장은 "글로벌 화학산업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등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이번 합작을 추진했다. 합작사가 글로벌 폴리우레탄 탑 타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합작을 통해 SKC의 산화프로필렌(PO)와 PU 비즈니스에 필요한 PO에서 시스템제품에 이르는 제품구조를 갖춰 글로벌 생산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정용기기자 yonggi@

풀HD급 영화 1초만에 다운… 7Gbps '와이기그' 시대 열려

풀HD급 영화 한 편을 1~2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7Gbps 속도의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0㎓ 초고주파 대역(57~64㎓)을 활용한 차세대 무선랜 기술인 와이기그(WiGig·Wireless Gigabit)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와이기그는 국제전기전자학회(IEEE)가 개발한 60㎓ 무선랜 표준(802.11ad) 인증 브랜드다. 이론 상 최대 전송속도는 기존 2.4㎓ WiFi의 10배, 5㎓ WiFi의 2배인 7Gbps 수준이다.

와이기그 칩셋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면 기기 간에 무압축 초고화질 영상을 전송받아 끊김없이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져 가상현실 게임이나 무선 프로젝터 회의장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올해 안으로 와이기그 칩셋이 탑재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문경기자

SKT-대원제약 '클라우드 KEIDAS' 실시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 의약품 유통 관리 서비스 '클라우드 KEIDAS'를 1일부터 시작한다.

클라우드 KEIDAS는 SK 텔레콤의 클라우드 기술과 한미 IT사(社)의 의약품 관리 솔루션 KEIDAS를 결합한 것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관리보고 의무화에 대비한 국내 최초 의약품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의약품 제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수집·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대원제약은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RFID와 2D바코드 시스템을 통한 일련번호 관리 시스템을 전 라인에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탁사 기준에 맞춘 의약품 일련번호 부여 및 대표코드 지원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대원제약은 휴대가 용이한 마이크로SD 기반 RFID 리더기를 통해 대원제약 영업사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의 일련번호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권송 SK텔레콤 기업솔루션부문장은 "대원제약과 함께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의약품 유통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의약품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앞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 관리에 최적화된 서비스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SK플래닛 '코드 스프린트 2015' 개최

온라인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SK플래닛(사장 서진우)이 개발자 대상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코드스프린트 2015'를 개최한다.

1일 SK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처음 개최한 '코드스프린트'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경진대회로 시공의 제한을 없애 국내외 개발자들은 물론, 현업 담당자,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장려해 코딩에 대한 관심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코드스프린트 2015'는 이 달 3일과 17일 각각 두 번의 라운드를 열흘간 연다. 경연 참가자는 라운드 별 또는 모든 라운드 참여를 선택할 수 있다. 각 라운드 별 문제는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코드스프린트 2015'의 도전 과제는 단기간의 경쟁을 통해 개별 실력을 극대화시키는 대회 취지에 걸맞게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 및 최적화를 추구하는 문제 위주로 구성된다.

이번 '코드스프린트 2015'의 특징은 우수 개발자 발굴을 위한 '명예의 전당'이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전 대회 라운드 별 1위 수상자들이 대상이다. 명예의 전당 수상자들은 대회 참여는 가능하나 순위권 입상 시 별도의 상품이 제공되며 차순위자가 입상하게 된다.

각 라운드 별 1~3위 수상자에게는 맥프로, 아이맥 레티나, 맥북프로 레티나, 뉴 맥북 등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10위권 이내 입상자들에게는 SK플래닛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가산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문경기자

'면세점 사업자 티켓'… 황금알 주인공은?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내달 10일 결정
"발표 당일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이 당락 가를 것"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티켓을 거머쥐는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가 내달 10일 결정된다.

관세청은 8~10일까지 사흘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마지막날인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총 4곳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8일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조만간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당초 하루에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24곳에 달하는 업체들 사업계획 발표(프리젠테이션, 총 25분)와 심사위원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심사기간을 이틀로 연장했다.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등이다.

프리젠테이션은 심사의 마지막 절차다. 발표 당일 모든 사업자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곧바로 토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이 당락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때문에 각 면세점 입찰 사업자의 대표가 총출동할 전망이다. 사업계획 발표순서는 지난달 4일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 대기업군은 신세계(신세계DF)를 시작으로 현대백화점(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 이랜드(이랜드면세점),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합작해 세운 HDC신라면세점 순이다.

서울 시내 한 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입찰 사업자 대표이사들은 몇 주 전부터 PT자료를 만들고 관련 연습과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부 기업의 경우 합숙을 하며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유치전은 국내 유수 대기업 오너들의 자존심 대결로 번지면서 눈을 모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라는 합작법인 설립 카드를 현대백화점은 영업이익의 2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SK네트웍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면세점 3.0 모델'을 제시했으며 한화갤러리아는 중소기업 전용관 구성을 내세웠다. 호텔롯데는 중소 면세사업자와 면세점 협력 운영이라는 상생을, 이랜드는 중국 대형 여행사 완다와 손잡고 연 100만 명 이상의 중국 VIP 관광객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당초 관세청은 7월 중순 이후 면세점사업자 발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과열 경쟁이 지속되면서 일정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금강제화, 1년에 단 한번 헤리티지 전 품목 20% 세일 금강제화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금강제화 명동점 헤리티지 라운지에서 '헤리티지 세븐데이(HERITAGE SEVEN DAY)'를 기념해 '로얄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문 잠근 홈플러스, 노조와 대화 거부

사측, 규탄 서한 전달 제지
노조, 공동대책위 구성 등
투명한 매각 위해 투쟁 할것

매각이 진행중인 홈플러스(대표 도성환) 사측과 노동조합 측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1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테스코의 홈플러스 비밀 매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 후 오전 11시 20분 께 도성환 대표에게 규탄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홈플러스 사측은 본사 현관 문을 잠그고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노조원들은 잠긴 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홈플러스 직원이다.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으나 굳게 닫힌 회전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날 노조는 홈플러스 노조는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사모펀드에 직원이 아닌 이윤만 생각하는 사모펀드에 매각하려 한다며 2만5000명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장은 "16년간 홈플러스를 위해 일해 왔으며 국내 유통 2위에 오르는데 일조했지만 우리 직장에 대한 매각 소식 조차 언론을 통해 들어야 했다.

우리집이 매각되고 우리 부모님이 떠나는데 자식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민주노총과 2일부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기완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은 "오늘은 잠긴 문을 두고 돌아가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minus@

오리온 '홈플러스' 인수할까

인수 통해 사업 다각화
제조·유통 시너지 기대
자금·노조문제 등 숙제

제과업체 오리온(회장 담철곤)이 대형마트 홈플러스 인수에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리온이 창사 이래 인수·합병(M&A) 경험이 전무한 만큼 의견이 분분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달 25일 홈플러스 인수 관련 예비 제안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칼라일그룹 등 글로벌 사모펀드 외에 국내 업체로는 오리온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온은 홈플러스 인수 추진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제조업과 유통업의 시너지는 물론 홈플러스 매장과 부동산을 개발해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은 무엇보다 불황에다 전체 매출의 10%정도를 차지하는 스포츠토토 사업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사업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홈플러스 인수 추진은 허인철 부회장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세계에서

담철곤 오리온 회장,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

오리온에 합류한 허 부회장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통한다. 하지만 문제는 자본력이다. 업계 안팎에선 '뱀이 코끼리를 집어 삼킨 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홈플러스의 매도 가격은 7조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오리온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2900억원 수준으로 역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는 오리온이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인수금액을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노조는 투기자본으로의 매각 등에 반대하고 나서 매각 구도가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사모펀드에 직원이 아닌 이윤만 생각하는 사모펀드에 매각하려 한다"며 "사모펀드는 단기적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기업의 미래에 관심없는 투기자본"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노조측은 민주노총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 풀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오리온이 인수를 검토 중인 홈플러스는 고객정보 유출 등의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유통망을 갖췄지만 불황과 규제로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약 8조9300억원의 매출과 3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편 식품업계는 오리온의 홈플러스 인수를 두고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가 유통사 인수에 나서는 게 놀랍다"며 "불황 경기침체로 대형마트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이재현회장 상고심 언제?… 목타는 CJ

21일 구속집행정지 종료…아직 기일 통보 없어
오너 경영공백 장기화 투자위축등 부작용 심화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가 드디어 4인 체제가 됐고,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이달 21일까지라는 점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박상옥 대법관이 취임한 후 대법원 2부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한명숙 의원 뇌물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이관하고 공개변론을 잇달아 잡는 등 빠르게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지연돼 온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당초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 3월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2월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후 임명 제청된 박상옥 대법관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연루·은폐 의혹을 받으면서 국회 임명 동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사건들의 심리도 늦어졌다. 이에 CJ는 지난 3월 구속집행정지를 한 번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야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이전에상고심을 선고할 가능성이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상고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CJ는 이 회장의 판결이 계속해 미뤄짐에 따라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이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CJ 사업과 투자가 안개 속 같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3조원에 육박했던 CJ그룹의 투자액은 지난해에는 2조원을 수준으로 떨어졌다.

CJ그룹 관계자는 "보통 기일이 정해지기 2주 전에 통보가 오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통보가 없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에 이뤄질지 아니면 더 미뤄질지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1심	2심	비고
조세포탈			
국내 차명주식 관련 - 1심인정 약 186억원 2심인정 약 177억원	유죄	유죄	
CJ㈜ 비자금 조성 관련 - 약33억원	유죄	유죄	
해외 SPC(특수목적법인) 관련			
<Royston 등 이용> - 약 215억원	무죄	무죄	증거불충분
<Prime perfomance 이용> - 약 8000만원	무죄	무죄	증거불충분
<Toridge 이용> - 약 18억원	무죄	무죄	증거불충분
<Tiger Galaxy 이용> - 약 40억6000만원	유죄	유죄	
횡 령			
CJ㈜ 법인자금 - 약 603억원	유죄	무죄	공소시효 만료, 증거불충분
CJ China 법인자금 - 약 79억원	유죄	유죄	
CJI 법인자금 - 약 36억원	유죄	유죄	
배 임			
일본 빌딩 매입과정 - 1심 약 363억원 2심 약 308억원	유죄	유죄	

1심 (약 1341억원 유죄, 약 234억원 무죄) - 징역 4년 벌금 260억
2심 (약 674억원 유죄, 약 837억원 무죄) - 징역 3년 벌금252억

CJ 이재현 회장 1심 2심 판결 내용

이랜드로엠, 명동에 국내 최대규모 플래그숍 오픈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의 영캐주얼 브랜드 로엠이 서울 중구 명동에 로엠 명동 중앙점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엠 명동 중앙점은 전체 면적 740㎡(223평)에 3개층으로 이뤄졌다. 기존 180여 개 매장을 대표하는 플래그숍으로 국내 로엠 매장 중 최대 규모다. /이랜드 제공

상반기 수출, 中企 제품 100종 돌파

GS홈쇼핑 '중기제품 수출지원 시스템' 리빙·이미용·패션 등 다양

GS SHOP

GS홈쇼핑(대표 허태수)은 올 상반기 '중기제품 수출지원 시스템'을 통해 100여종의 상품, 약 150만개의 중기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GS홈쇼핑은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제품들을 직매입한 후 해외 홈쇼핑에 판매하는 '중기제품 수출지원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해외에서 판매한 한국 상품 약 1500억 원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 차지할 정도다. 누적된 해외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종류는 350여개에 이른다. 상품의 분야도 리빙·이미용·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출 품목이 늘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본코스메틱의 플루 바디스크럽은 중국·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최근 3년간 약 500만 달러 어치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로렌스시계의 금장시계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는 히트 상품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100번째에 해당하는 제품은 로이첸의 요거트데이로 태국과 중국에서 지난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달부터 널리팝 쥬서기, 엘리샤코이 CC크림 등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해외에 판매될 예정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을 직매입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재고관리와 환율 리스크, 통관 절차 등에 대한 제반 작업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쉽게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설화수, 싱가포르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100번째 글로벌 매장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의 설화수가 싱가포르 랜드마크 지역인 '캐피톨 싱가포르'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설화수는 지난 2012년 탕스 오차드에 첫 매장을 열며 싱가포르에 진출했다. 이번 매장은 설화수의 100번째 글로벌 매장이자 아세안 지역 내 최초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다.

싱가포르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브랜드의 가치와 지향점을 매장 디자인 곳곳에 반영했다. 매장 정면 쇼윈도에는 '홀리스틱 뷰티'라는 브랜드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존이 구성된다. 통로 쪽 쇼윈도는 원료존으로 설화수의 핵심 성분인 자음단™과 설화수 인삼 과학의 결정체인 진세노믹스™에 대해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파리바게뜨, 프랑스 2호점 연다

진출 11개월 만에 추가 출점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파리 2호점인 '오페라(Opera)점'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파리 1호점인 샤틀레점을 오픈한 지 11개월만에 추가로 매장을 열었다.

파리바게뜨 오페라점은 연면적 200㎡, 좌석 22석 규모의 복층형 매장으로 1층은 베이커리, 2층은 카페로 공간을 구분했다.

차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스낵류 제품을 강화하고, 프랑스인들의 티타임 시간인 오후 4시경에 이용할 수 있는 세트메뉴도 마련한다. 지난달부터 프랑스 파리 1호점에서 선보인 크림빵·단팥빵 등의 한국적인 제품의 마케팅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1호점이 오픈 직후 일찌감치 영업흑자를 내는 등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예정보다 빨리 프랑스 2호점을 오픈하게 됐다"며 "파리바게뜨만의 차별화된 베이커리 카페 컨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프랑스 베이커리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7월 문을 연 파리 샤틀레점은 방문객이 개장 초기보다 20% 이상 늘어난 일 8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휴가 즐기려면 '자외선차단제' 필수

자외선 인한 일광화상 땐 피부면역감소·노화 유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바캉스를 떠나기 위해 준비할게 많겠지만, 피부건강을 위해 미리알아 두어야 할 사항도 있다.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피부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곳곳에 잠재해 있어 휴가가 끝나고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거나 갑자기 피부노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바노바기성형외과 피부과전문의 전희대 원장은 "바캉스 기간 중, 피부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요소로부터 잘 보호 하지 않으면 휴가 이후에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거나 피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며 "바캉스 전에 미리 피부관리법을 숙지해 피부보호에 신경 쓰고, 휴가 후 적절한 관리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외선 차단이 최우선, 수영장에선 전염성 피부질환 조심

태양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색소 침착과 함께 피부탄력을 좌우하는 진피 내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성분이 분해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길 수 있다. 또 자외선으로 인해 일광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손상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겨 피부 면역력 감소와 함께 여러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전에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필수다. 야외활동 시에는 SPF30, PA+++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적어도 야외활동 30분전에에 충분히 도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증상에 맞는 바른 처치 필요, 휴가 후 피부관리 받는 것도 도움

햇빛에 과하게 노출되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일광화상을 입었다면 냉 찜질로 열기를 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콜드크림과 같은 피부연화제를 수시로 발라 건조함과 붉은 기운을 줄여준다. 피부가 화끈거릴 때는 감자나 오이, 알로에로 만든 천연 보습 팩도 효과가 있다.

도움말:전희대 원장(바노바기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융복합 예술축제 '파다프' 막 올라

상명대, 대학로서 12일까지

상명대 무용예술학과 한선숙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내 유일의 융복합공연예술축제인 파다프(PADAF: Play Act Dance Art-Tech Festival)가 대학로예술극장, 동숭아트센터, 갤러리이앙, 예술가의 집 등 대학로 일대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지난 30일 오후 6시에는 '파다프 이미지전'의 개막식이 갤러리 이앙에서 개최됐다. 파다프 이미지전은 파다프 출연아티스트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이를 전시하는 전시회로서 한국인물작가회의 작가 10여명이 작품을 선보였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인물작가회 회장인 상명대 서명덕 교수(전 상명대 총장)가 디렉팅을 맡았다. 또한 밤 8시부터는 대학로 대극장에서 파다프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됐으며, 개막식에서는 개막작인 'Cocorico(꼬꼬리꼬)'가 상영됐다.

조직위원장인 상명대 한선숙 교수는 "국내 유일의 융복합공연예술축제인 파다프는 장르간의 벽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예술장르를 탄생시키는 역사적인 장이 될 것"이라고 개막소감을 밝혔다.

/복현명기자

서울여대, 진로 고민 청소년 위해 '멘토' 나섰다

17개 학과 '전공기부단' 발족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지난 30일 교내 50주년기념관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과 학과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015 전공기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울여대는 총 17개 학과에서 103명의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전공기부단으로 참여한다. 전공기부단은 중고등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설됐다.

앞으로 학과별 전공탐색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고등학교에 방문하거나 중고등학생들을 대학교로 초청해 학과탐방을 진행하게 된다. 오는 2학기부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도 하게 된다.

서울여대는 그동안 중고등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왔다.

전공기부단에 참여하는 학과는 2014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CK-II)에 선정된 일어일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언론영상학부, 교육심리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정보보호학과를 비롯해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경영학과, 문헌정보학과, 수학과, 화학과, 의류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이다.

/복현명기자 hmbok@

손흥민도 게토레이로 수분 보충

롯데칠성음료 새 광고 선봬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레버쿠젠)에서 활약 중인 축구국가대표 손흥민을 모델로 한 게토레이 광고를 1일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땀을 넘어 승리로'라는 콘셉트로 제작돼 승리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땀 흘리는 순간에 게토레이를 통한 수분과 미네랄 재충전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땀, 타협하지 않기에 멈추지 않는다'와 '땀 흘리는 순간엔 게토레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손흥민의 열정적인 훈련 장면들부터 경기 중 상대편 선수를 제치고 승리의 골을 성공시키는 환호의 순간까지 실감나게 담았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더위 이기고 면역력 키우는 곰탕 드려요"

강강술래
한우사골곰탕 경품축제 15일까지 홈페이지 추첨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여름을 맞아 고객들의 기력보충과 원기회복에 좋은 곰탕 경품축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온 가족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500㎖·10봉·20인분)를 선물한다.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해 2011년 출시 이후 롯데·신세계백화점과 매장을 통해 50만 봉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링 상품이다.

또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다.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곰탕박스(500㎖·10봉·20인분)를 60% 파격 할인된 2만86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2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강술래는 경기 고양시에 가족단위 중심의 힐링 외식문화공간을 목표로 총 450억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개념 외식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중국 텐진시에 첫 매장을 내며 해외진출에도 나섰다.

/김보라기자

'원피스 드라마틱 피규어' 한정판 출시

나뚜루팝, 4종 1만5000원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대표 노일식)은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컬래버레이션 일환으로 트리플컵 이상 구매 시 '원피스 드라마틱 쇼케이스 피규어'를 한정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원피스 드라마틱 쇼케이스 피규어 제품은 애니메이션 원피스 대표 캐릭터인 루피·에이스·샹크스로 구성됐다.

애니메이션에서 명장면으로 알려진 에이스와의 마지막 포옹, 샹크스와 약속의 모습을 각각의 캐릭터간 조합으로 구현했다. 트리플컵 이상의 제품 구매 고객 대상으로 피규어 4종을 각각 1만5000원에 판매한다.

나뚜루팝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업계의 성수기인 7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원피스 드라마틱 쇼케이스 피규어'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매니아가 많은 애니메이션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star bag

열애? 그냥 친구에요

배우 **이종석, 박신혜** 소속사가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친구 사이"라고 해명했다. 드라마 '피노키오'로 만난 이종석, 박신혜는 1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4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양측은 "이종석과 박신혜는 친구 사이"라며 "워낙 호흡이 좋아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현 소속사와 의리 지켜

배우 **고아성**이 현 소속사인 포도어즈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종영한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안정적인 연기와 한층 더 성숙한 연기로 시청자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오는 8월 영화 '오피스'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오빠생각'을 촬영 중이다.

앨범 '리얼리티'로 컴백

그룹 **인피니트**가 완전체로 컴백한다. 인피니트는 1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티저 이미지와 함께 새 앨범 타이틀 '리얼리티(Reality)'를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컴백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모든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1년 만에 선보이는 앨범인 만큼 음악적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걸그룹 대전에 출사표

신인 걸그룹 **소나무**가 7월 중 두 번째 앨범으로 걸그룹 대전에 출사표를 던진다. 컴백 타이틀곡은 이단옆차기 사단의 신예 프로듀서 이스트웨스트(EastWest)와 주목 받는 래퍼 우노(WuNo)가 참여했다. 소나무는 지난해 12월 데뷔했으며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을 했다.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 **한채아**

한채아(33)는 2006년 가수 손호영의 뮤직비디오로 데뷔했다
2008년 시트콤 '코끼리'를 시작으로 '스타일' '각시탈' '울랄라 부부' '내 연애의 모든 것' '미래의 선택' 등 드라마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지난 5월 120부작으로 종영한 일일극 '당신만이 내 사랑'에서는 주연을 맡아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드라마에 비해 영화에서의 활약은 미약했다. 2012년 '아부의 왕'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이 전부였다.
그런 한채아가 김기덕 감독이 각본과 제작에 참여한 작품에 출연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지난 25일 개봉한 '메이드 인 차이나'(감독 김동후)가 바로 그 영화다.

외로웠던 마음, 영화로 치유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중국산 장어를 소재로 해 한국 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편견을 꼬집는 작품이다. 한채아는 드라마 '미래의 선택'을 거의 마쳐가던 무렵 시나리오를 받았다. 쉽지 않은 주제였다. 하지만 '미래의 선택'과는 사뭇 다른 다소 무거운 캐릭터에 끌렸다. '각시탈'로 호흡을 맞췄던 "동생 같은" 배우 박기웅이 상대역으로 출연한다는

드라마와 다른 무거운 역할 매료
당시 외로운 자신의 감정과 비슷

늦게 시작한 영화 욕심도 많아져
나약한 심리 그린 연기 하고싶어

점도 큰 힘이 됐다.

극중 한채아가 맡은 인물은 식약처에서 일하는 여인 미다. 첫 등장부터 차가운 표정이 인상적이다. 한채아는 미를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여자"라고 설명했다. 감정을 표현하는 대사도,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기에 연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다.

"시나리오를 두세 번 읽을 때마다 모르는 게 많았어요. 저조차도 미의 행동이 납득이 안 갔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잖아요. 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런 미의 감정을 내 얼굴로 표현하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미의 행동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영화를 촬영할 당시 개인적으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제 심리상태가 미와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미의 얼굴에 한채아의 얼굴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첸이 저를 안아줄 때 제 자신이 위로 받는 느낌을 받았죠. 영화를 찍고 나서야 우울했던 기분에서 벗어났어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냐고요? 나이가 들면 다들 이런 때가 온다더라고요(웃음)."

김기덕 감독이 참여한 작품이 실질적인 첫 영화가 됐다. 배우로서의 도약을 노린 선택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채아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이 영화를 선택하지는 않았다"며 웃었다. 첫 영화지만 촬영 기간이 워낙 짧았던 탓에 영화 현장을 제대로 느껴볼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일까. 지금 한채아는 드라마 못지않게 영화에 대한 꿈이 가득하다.

연기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한채아는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 천천히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갔다. "처음 5~6년 동안은 연기를 계속 해야 하는 건지 생각도 많았어요. 확고한 연기의 신념이 없었죠. 그때 작품들을 다시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예요(웃음)." 정체성이 생긴 만큼 연기와 캐릭터에 대한 욕심도 많아졌다. "액션을 해보고 싶어요. 불쌍하고 나약한 인간의 심리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다가올 10년이 더 기대돼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티켓 예매 후 '클릭'… 공연계 돕는다

인터파크 '착한 클릭' 캠페인

인터파크(www.ticket.interpark.com)가 공연 업계 발전을 위해 '착한 클릭'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착한 클릭' 캠페인은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예매한 후 지원을 원하는 문화 장르에 투표하는 시스템이다. 예매자는 '착한 클릭' 페이지에서 ▲창작뮤지컬 활성화 ▲다양한 인디음악, 뮤지션 공연 지원 두 가지 주제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면 된다.

인터파크는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음악산업레이블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7~12월) 예매자 클릭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이들 협회에 분배할 계획이다.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은 추후 발표한다.

김선경 인터파크씨어터 홍보팀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내 뮤지컬과 공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캠페인 주제는 반기별로 새로운 이슈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접속·우생순 등 36편 다시 만난다

명필름, 창립20주년 특별전 개최

영화사 명필름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에서 특별전 '명필름 전작전: 스무살의 기억'을 개최한다.

'명필름 전작전: 스무살의 기억'은 1995년 명필름 설립 이후 제작한 영화 36편 전작을 상영하는 특별전이다. '접속' '공동경비구역 JSA'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마당을 나온 암탉' '건축학개론' 등 명필름의 대표작부터 최근작 '화장'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사랑의 기억' '금기를 넘어' '이 여자들이 사는 법' '아이들은 자란다' '삶과 사람' '음악과 꿈' '시대의 목소리' '장르의 재발견' 등 8개의 테마로 나눠 상영된다.

송강호, 문소리, 박원상 등 명필름과 인연을 맺은 배우들과 '건축학개론'의 주연 배우 이제훈, 수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연출을 맡았던 감독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디렉터스 위켄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장병호기자

형사 vs 재벌 3세 '격돌'

황정민·유아인, 영화 '베테랑'으로 첫 호흡

'국제시장'으로 1000만 배우가 된 황정민, 그리고 청춘을 대표하는 배우 유아인이 형사와 재벌 3세로 격돌한다.

황정민, 유아인은 내달 5일 개봉하는 영화 '베테랑'(감독 류승완)에서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과 재벌 3세 조태오 역으로 첫 호흡을 맞췄다. '베테랑'은 안하무인 유아독존 재벌 3세를 쫓는 광역수사대의 활약을 그린 범죄오락액션 영화다.

1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황정민은 "유아인이 연기를 잘한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저 나이 때 저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부러웠다"고 유아인과 처음 만난 소감을 전했다.

황정민 유아인

유아인도 "황정민 선배와 같이 작품을 할 생각에 흥분되고 설렜다. 잘 챙겨주시고 판을 잘 깔아줘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정민은 '부당거래'에 이어 또 한 번 형사 역할로 류승완 감독과 작업했다. 그는 "'부당거래'의 최철기 형사가 속을 알 수 없는 회색 같은 인물이라면 '베테랑'의 서도철은 정의감 있고 다혈질에 잔정도 많은 인물"이라고 차별점을 밝혔다.

'완득이' '깡철이' 등에서 가난한 역할을 주로 연기한 유아인이 재벌 3세로 변신한 것도 눈에 띈다. 유아인은 "진짜 내 옷을 입은 느낌이었다"고 너스레를 떤 뒤 "늘 편하게 연기하다 수트에 탁 갇혀 연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악역 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파볼 생각"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영화는 '부당거래' '베를린'으로 연타석 흥행 홈런을 친 류승완 감독이 연출했다. 류 감독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모두를 충족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베테랑'은 이 모든 걸 다 한 영화"라며 "지금껏 만든 영화 중 가장 오락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대한민국에 웃음을 선사한 입담들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 10분

'전설의 MC'특집이다. 버라이어티 쇼의 살아있는 전설 이덕화, 쿡방의 원조이자 '잠참잠'을 비롯해 100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MC계의 거장 이홍렬, 라디오 DJ 경력만 20년인 당대 최고 남자 MC들의 파트너이자 여성 MC계의 선구자 허수경, '해피투게더' 최단 기간으로 MC에 합류한 '호통 개그'의 원조 박준규, 데뷔 5년차에 현 '무한도전' 멤버가 된 MC 꿈나무 광희가 '야간매점'을 찾는다.

◆ JTBC '님과함께 시즌2'

오후 9시 40분

윤건, 장서희 부부는 친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한다. 둘은 끈적한 부부댄스로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더니 과감한 입맞춤까지 서슴지 않는 애정행각을 선보인다.

◆ MBC '경찰청사람들 2015'

오후 11시 15분

2013년 전주와 올해 청주에서 발생한 일가족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밝힌다. 두사건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일가족이 숨졌다. 그런데 각 사건에는 이들과 함께한 한 사람의 생존자가 있었다.

◆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

오후 11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표창원과 함께하는 추리특집이다. 미제 살인사건의 범인을 밝히기 위해 MC들은 사건 현상 속에 드러난 여러 증거들과 범인의 흔적을 추적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74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64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14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18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39회)	3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전야제	55 딱 너 같은 딸 (34회))	2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30 세계의 교육현장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KBS 다큐 1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14회)	00 맨도롱 또똣 (16회)	00 가면 (12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빅 피쉬>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전통시장 아주 특별한 동거	10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시	35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역사채널e (재)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37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0회) (재)					◆ 프로야구 (18:30) 한화 vs KIA(SPOTV+) 롯데 vs NC(MBC SPORTS+) LG vs 두산(SKY SPORTS) KT vs SK(SBS SPORTS) 삼성 vs 넥센(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00 유미의 방 (1회) 30 오늘 뭐 먹지? (75·76·23회)	00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동물 TOP 10	40 나도 영화감독이다 (3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성적욕망 (4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1회)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9회)	40 한식대첩 3 (7회)	30 한식대첩 3 (7회)	00 아프리카의 영원한 적 사자 vs 버팔로	00 나도 영화감독이다 (4회)	
22시				00 <예수가 선택한 제자, 12사도>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20 가시	
23시	00 썰전 (122회)	00 문제적 남자 (19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7회) 20 오늘 뭐 먹지? (76회)	00 프로그맨 1부		
24시	20 5일간의 썸머 (7회)	20 집밥 백선생 (7회) (재)	00 한식대첩 3 (7회)	00 콜드 워터 골드 (6회)	30 스크리머스 2	

전 경기 출장 김태균, NC 가을야구 이끈다

포수로 올 시즌 유일

NC 다이노스 '안방마님' 김태군(26)이 올 시즌 포수로는 유일하게 전 경기 선발 출전에 도전한다.

김태군은 지난달 28일까지 NC가 치른 72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이로써 2015시즌 KBO리그의 절반을 소화해냈다. 10개 구단별로 지금까지 전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총 10명이다. 그러나 이중 수비 부담이 많은 포지션인 포수 중에서 전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선수는 김태군이 유일하다.

야구에 있어 포수는 체력적인 부담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 월등하다. 3kg에 달하는 장비를 두른 채 한 경기에도 수백 번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한다. 홈 스틸 상황에서는 온몸으로 상대에 맞서야하고 준족들의 도루를 저지하기 위해 집중력을 한시도 놓아서는 안된다.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많다.

또 전략적인 포지션이기도 하다. 한 경기에도 교체가 잦은 투수들의 구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들과의 호흡도 조절해야 한다. 상대 타자들의 약점을 파악해 가장 먼저 공략에 나서는 수비의 선봉장이기도 하다.

김태군은 공격에서도 장타력을 앞세워 활약중이다. 지금까지 타율 0.280을 기록하며 2루타 16개와 홈런 4개를 때리며 24타점을 올렸다. 올 시즌 친 61개의 안타 중 3분의 1이 장타다. 타팀의 타자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기록한 성적과 비교하면 월등하다. 2루타는 시즌 최다 기록(2014년 13개)을 넘어섰고, 홈런은 타이(2013년 4개)를 이뤘다. 타점도 기존 최다 기록(2013년 28타점)을 곧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신력이 뛰어나다. 지난달 19일 KT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타자의 파울타구에 급소를 맞는 등 2차례 타구에 맞아 고통을 호소했지만 재빨리 돌아와 다시 공을 받았다.

김태군은 "고통이 배를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짓눌렀다. 하지만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투수의 어깨가 식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묵묵한 활약 덕분에 NC는 올시즌 외국인 투수 1명과 핵심 불펜 원종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10개 구단 중 팀 방어율 1위(4.42)를 달리고 있다.

김태군이 올시즌 전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면 1996년 쌍방울 박경완(126경기), 2006년 롯데 강민호(126경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전 경기 출전 포수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추신수, 4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달성

강정호, 6타수 1안타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이틀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네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추신수는 1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캠든야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원정경기에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텍사스가 5-4로 앞선 5회 좌월 솔로 홈런을 터트렸다. 이날 4타수 1안타에 볼넷 하나를 얻고 1타점 1득점을 올려 시즌 타율 0.232를 유지했다.

전날 메이저리그 통산 500번째 타점을 채우는 솔로 홈런을 쳐낸 추신수는 2경기 연속 홈런포와 함께 시즌 10개째를 기록했다. 이로써 16개의 홈런을 친 2012년부터 네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2013년에는 21개, 지난해에는 13개의 홈런을 때렸다.

추신수는 2005년 빅리그 데뷔 이후 11시즌 중 7시즌에서 10개 이상 홈런을 쳤다. 개인 통산 한 시즌 최다 홈런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던 2010년의 22개다. 올 시즌 텍사스에서 미치 모어랜드(14개), 프린스 필더(12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홈런을 기록 중이다.

텍사스는 홈런포 4방을 앞세워 볼티모어를 8-6으로 누르고 2연승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3경기 만에 안타를 쳐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인터리그 원정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강정호는 6타수 1안타에 볼넷 1개로 경기를 마쳤다. 3경기 만에 안타를 추가했으나 타수와 비교하면 안타 수가 적은 탓에 시즌 타율은 0.265에서 0.262(187타수 49안타)로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연장 접전 끝에 5-4로 승리했다.

/하희철기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대파 '결승행'

코파아메리카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아르헨티나를 2015 코파 아메리카 결승으로 이끌었다.

아르헨티나는 1일(한국시간) 칠레 콘셉시온의 무니시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파라과이를 6-1로 꺾었다.

아르헨티나는 이날 경기에선 초반부터 골을 터뜨리며 우승후보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메시는 파라과이의 수비가 자신에게 집중되자 팀 동료들에게 기회를 몰아줬다.

전반 15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골문으로 쇄도하던 마르코스 로호(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목표로 정확하게 대각선으로 왼발 프리킥을 올려줬고 로호는 이것을 낮게 깔아차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 27분에는 미드필드에서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달려들던 하비에르 파스토레(파리생제르맹)와 수비수들 사이 빈공간으로 패스를 찔러넣어 두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5-1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 후반 38분 골문을 향해 쇄도하던 곤살로 이과인(나폴리)에게 쓰러진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골을 찔러줘 자신의 세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는 5일 개최국 칠레와 우승컵을 놓고 결승전을 치른다.

/하희철기자

양궁·배드민턴 출격 8·12일 '골든데이'

광주 하계U대회

내일 전야제 '뮤뱅' 촬영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을 겨냥하는 날은 8일과 12일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서 걸린 금메달 수는 총 272개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25개 이상을 따내 메달 순위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8일은 양궁 리커브 종목이 펼쳐진다. 한국은 이날 금메달 5개를 싹쓸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 양궁 대표팀은 기보배(광주시청), 김우진(청주시청) 등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사격과 태권도에서 금메달이 추가로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8일 하루에만 금메달 7개 안팎을 수확하게 된다.

대회 막판인 12일은 이용대(삼성전기)가 이끄는 배드민턴에 금메달 5개가 걸려있다. 이 가운데 4개 이상을 따내는 것이 목표다. 리듬체조 손연재(연세대)는 개인종합 결승에 나서고 태권도와 테니스 남자단식 정현(상지대)도 금메달 후보다.

한편 광주U대회 조직위는 2일 오후 8시30분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전야제 행사의 일환으로 KBS2 '뮤직뱅크' 특별생방송을 펼치며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한상헌 아나운서와 그룹 '걸스데이'의 민아·유라가 공동 MC를 맡는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정의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타악그룹 진명, YB, 로맨틱 펀치, 알리, 샤이니, 포미닛, EXID, 걸스데이, 방탄소년단 등이 출연한다.

/하희철기자

유병진 단장과 남자 기계체조 양학선을 비롯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에 도착해 입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Too Early to be 'Shin Dong Bin's Lotte

<'신동빈의 롯데' 아직 시기상조>

The true nature of 'L investment company' which is a Japanese enterprise taking part in key stock holding of Korea Lotte was exposed.

L investor is taking huge amount of dividend every year from Lotte affiliates.

But they have Japanese nationality and it is an unlisted company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Korea to know about their possession s nor their supremacy over them.

Based on what is seen regarding L investor, Shin Dong Bin's Lotte is still a far from near future.

Lotte's CEO Shin Gyuk Ho still remains as the actual chairman of L investing company and the inheritor has not been appointed yet.

롯데그룹 신격호(왼쪽) 총괄 회장과 신동빈 회장.

'한국 롯데' 전체의 핵심 주주 역할을 하는 일본 국적 기업 'L투자회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L투자회사는 국내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을 받아 챙겨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적인데다 비상장 회사여서 소유와 지배구조가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L투자회사의 현황에 비추어 '신동빈의 롯데'는 완성되지 않은 미래형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여전히 L투자회사의 실질적 지휘권자로 남아있고, 아직 후계자를 뚜렷하게 지목하지 않은 상태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4	
		3				7		
8								6
	7		5		6		2	
			2	4	9			
3								9
				7				
	8	4		2		9	3	
7	9	2	4		3	6	8	1

	2	1				3	6	
			5	3	2			
		9		6		2		
	8	6				7	9	
			2		9			
	3	5				1	4	
		3		1		8		
			8	2	7			
	6	2				4	1	

스도쿠 정답

2	1	6	7	9	5	8	4	3
9	5	3	8	6	4	7	1	2
8	4	7	3	1	2	5	9	6
4	7	9	5	3	6	1	2	8
1	6	8	2	4	9	3	7	5
3	2	5	1	8	7	4	6	9
6	3	1	9	7	8	2	5	4
5	8	4	6	2	1	9	3	7
7	9	2	4	5	3	6	8	1

5	2	1	9	7	8	3	6	4
6	4	8	5	3	2	9	7	1
3	7	9	4	6	1	2	5	8
2	8	6	1	4	3	7	9	5
4	1	7	2	5	9	6	8	3
9	3	5	7	8	6	1	4	2
7	5	3	6	1	4	8	2	9
1	9	4	8	2	7	5	3	6
8	6	2	3	9	5	4	1	7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다단계회사 투자 실패… 손재수가 있나요? 기술계통 취직해 월급 받으며 생활 하시길

포인트세상 남자 73년 2월 13일 양력 6시경

Q 사주상담을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넌다' 라 듯이 사주가 나쁘게 나오면 미리 조심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어 왔는데 이번에 제가 당하고 나서 보니 까 상담을 필히 해 보고 사업이나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왕 손재수를 당했지만 자문을 구합니다. 일을 해오면서 돈이 고파서 이것저것 구상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다단계회사(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도 안 된 쓰레기 같은 회사)에서 광고만 시청해도 하루에 돈이 몇 천 원씩 쌓인다고 해서 기 백만 원을 투자 했는데 몇 달 지난 후 하루아침에 그 회사가 망해서 분해 돼버렸습니다.

A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끔 마련이고 부자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모여 살기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한곳에 모이면 부촌(副村)이 되고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주학에서 투자에 적합한 사주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일단 사주가 부격(富格)이냐를 살펴봅니다. 귀하는 봄철에 태어난 경진(庚辰)이라는 생일주가 포태법 상으로 절지(絶地:단절)에 있어서 남자사주로서는 신약(身弱)합니다. 사주뿌리에 목국(木局:나무로 무리를 이룸)이라 나무의 세력이 너무 강하며 주변 관계에 재성(財星)이 많아서 재다신약(財多身弱) 사주구조라고도 합니다. 경금을 나타내는 오행이 금(金)으로 도끼와 같은 형상인데 원래 도끼가 나무를 잘라내는 일을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나무가 너무 강해서 도끼날이 망가지는 형국으로 재성(財星:돈이나 여자를 칭함)을 감당 못합니다. 부 격과는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게다가 올해 운이 충살(충돌)에 원진살(원수지듯 지내는 흉함)이 중첩된 때에 보장도 안 되는 허접한 곳에 투자를 했으니 망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노릇입니다. 귀하나 독자 분들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일 상품이나 투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은 당장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에서 수익률과 위험부담은 정비례합니다. 위험하면 더 많이 기회가 오지만 하루아침에 있는 돈 없는 돈하여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하며 결국에는 위험 부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 운이 생을 받기시작 하였으니 기술계통에 직원으로 봉급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일 (음 5월 17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수익을 흥청망청 쓰지마세요. **60년생** 나서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세요. **72년생** 확실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84년생**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49년생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낯선 사람의 접근을 주의하세요. **73년생** 친구를 너무 믿지 마세요. **85년생** 굳센 마음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50년생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62년생** 늦은 저녁 외출을 삼가세요. **74년생** 집에 있는 것이 길한 하루입니다. **86년생** 지금의 손해를 감수하는 게 다음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51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63년생**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75년생** 남쪽이 길방입니다. **87년생** 타인의 실수로 인하여 당신까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52년생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64년생** 먼 친척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76년생** 주변의 도움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88년생** 항상 베푸는 자세로 일관하세요.

53년생 당장의 금전적 손실에 흔들리지 마세요. **65년생**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77년생**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89년생**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54년생 하는 일마다 실속이 따르게됩니다. **66년생** 몸과 마음 모두 행복한 하루입니다. **78년생**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90년생** 전화위복의 기회가 옵니다.

55년생 저녁에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세요. **67년생**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길합니다. **79년생** 이성과마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91년생**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56년생 주위사람의 조언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68년생**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과 상의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80년생** 이성문제로 고민이 생깁니다. **92년생** 자금관리에 신경을 쓰세요.

57년생 생활의 페이스를 놓치지 마세요. **69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를 용서해주세요. **81년생** 모든 공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93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58년생 부부사이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70년생**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82년생** 마음을 정리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94년생** 더욱 더 학업에 정진하면 좋습니다.

59년생 말 조심 하세요. **71년생** 어설픈 감정은 후회를 부릅니다. **83년생** 사소한 장난도 조심해야 합니다. **95년생** 남의 흉을 보면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중구청의 신세계 밀어주기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역사유적 중 하나로 로마의 트레비 분수가 꼽힌다.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물 속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비는 높이 26m, 너비 20m의 이 분수는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동전을 던지는 장면으로도 기억되는 낭만적인 곳이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조각군들로 장식된 4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트레비 분수는 17~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바로크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며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한복판에서도 트레비 분수를 볼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신세계와 신세계면세점 법인인 신세계DF, 서울 중구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한국은행 앞 분수대와 분수 광장 재단장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분수대를 매년 관광객 1000만명이 방문하는 트레비 분수와 같은 고급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좋은 뜻이다.

하지만 협약이 맺어진 시점을 생각하면 결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달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선정을 코 앞에 두고 맺은 신세계와 중구청의 세번째 협약이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지난달 24일에도 중구청을 비롯해 서울시·중기청·남대문시장상인회와 '남대문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23일에는 중구청·남대문시장상인회와 손잡고 남대문을 아시아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민감한 시기에 다른 구청장들과 다른 행보로 눈총을 받고 있다.

중구청을 제외한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는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SK네트웍스·현대백화점·롯데호텔 등이 선정한 면세점 입지가 있는 구청장들은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각 입찰 신청기업들에게 언론을 통한 과열경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강남구·동대문구·서초구·영등포구·용산구·종로구 등의 구청장은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데 유독 중구청장만 나서서 신세계와 3번씩이나 협약을 체결하며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구청장의 성균관대 동문 밀어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법인인 신세계 DF 성영목(60) 대표, 신세계면세점이 들어서는 신세계백화점 장재영(56) 대표는 최창식(64) 중구청장과 같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각각 신문방송학, 경제학,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최청장이 성대표와 장대표의 선배다.

민감한 시기에 세번씩이나 협약이 이뤄졌지만 실상은 별 내용이 없으며 언론 홍보만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과대 포장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남대문시장의 아시아 관광 허브 선언때 신세계가 남대문 시장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억원에 그쳤다. 지난달 남대문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선 3년간 15억원의 사업비를 출연해 홍보·유통·마케팅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전부다.

이번 '트레비'라는 포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시설로 만든다는 말만 있을 뿐, 투자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은행 앞 분수대는 남산미술원 원장이었던 이일영 작가가 1978년 당시 서울시의 예산으로 만든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이다. 이렇다할 역사적인 스토리나 작품성이 알려지지 않은 40년 가까이 된 이 분수대는 트레비 분수가 되기 위해 어쩌면 철거될지도 모르겠다.

중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랜드마트로 만든다는 계획만 있을 뿐, 현재 분수대를 철거하고 새로 만들지 그대로 보존할 지 등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생활유통부장

중국 드라마 심의, 사전제작이 해법

기자 수첩

하희철 <문화스포츠부 기자>

중국은 올 1월부터 드라마 사전 심의제를 도입했다. 콘텐츠를 검열해 중국 내에 방영할 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 드라마의 중국 수출은 지난해 SBS '피노키오' 이후 끊긴 상황이다.

중국 당국이 쏟아지는 해외 콘텐츠로부터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로인해 한국 드라마는 수출에 위기를 맞았다. 심의를 신청하면 적어도 6개월 이후에나 방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6개월 사이 토렌트나 스트리밍 등으로 얼마든지 불법 유출될 수 있다. 한 번 인터넷에 퍼진 콘텐츠는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 제값을 받지 못하게 돼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드라마 소재도 제한을 받는다. 살인이나 선정적인 장면, 외계인과 전생 등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이 방송 불가 항목에 포함됐다.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을 소재로한 드라마가 제한을 받게 됐다. 물론 살인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수사 장르 드라마도 그렇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바로 사전 제작이다. 심의를 신청한 뒤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동시 방영이 가능해진다. 불법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KBS는 송혜교·송중기 주연의 '태양의 후예'(12월 방송 예정)를 KBS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100% 사전 제작키로 했다. SBS 역시 이영애가 '대장금'(2004) 이후 12년 만에 안방으로 복귀하는 작품인 '사임당, 더 허스토리'(2016년 방송 예정)를 30회 전회 사전 제작하기로 했다.

사전제작은 무엇보다 드라마 제작환경을 바꿀 수 있다. 쪽대본이 난무하는 지금의 제작 방식은 거의 생방송이나 다름 없어 스태프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사나흘 밤을 새는 게 예삿일이다.

사전제작은 영상의 질적 개선도 가능케 한다. 영상에 색보정을 하려면 적어도 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CG를 입히려면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HD시대를 넘어 UHD를 넘보고 있는 시대에 기술적인 후반 작업은 필수적이다. JTBC가 9월에 방영하는 '디데이'는 드라마 초반에 쓰일 지진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5월부터 일찌감치 촬영을 시작했다. CG를 입히려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드라마가 방영 2개월 혹은 1개월 전에 촬영을 시작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국제거래서 법은 얼마나 중요할까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국제거래에서 법과 법 논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 왔는데, 혹자는 내가 변호사이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와 달리 위험이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라는 측면에서 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제거래의 경험이 부족한 한국기업들은 상대방이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를 신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라기 보다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법적 사고를 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믿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국기업인 A사는 해외 바이어와 미팅을 하였는데 첫 미팅에서 제품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A사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 바이어는 현지의 여러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제품판매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니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빨리 달라고 했다.

A사는 얼떨결에 그가 요청하는 공문에 날인을 해 주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위임장(Power of Attorney)였다. 이 위임장에는 아무런 기간제한도 없고, 위임의 업무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그야말로 백지위임장이었다.

이런 위임장을 준다는 것은 마치 법인인감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 A사는 위임장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국제거래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국제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법을 다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법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법 논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서명한 문서는 어떤효과가 있을까? 내가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인가? 상대방이 권한을 넘는 행동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쟁이 생면 나의 최대 손실은 얼마 정도일까?' 등등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서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재헌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인사

■ 메트로신문
△ 편집국 선임기자(국장급) 차기태
■ 연합뉴스TV
△부장 ▷문화·제작부 김가희 ▷스포츠부 이동칠
■ 이투데이
▷미래설계연구원 연구위원 이학규
■ 아주경제
▷편집국 글로벌뉴스본부장 정원교
■ 국민안전처
△과장급 전보 ▷안전감찰관실 감사담당관 경무관 류춘열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김상년 ▷제도개선총괄과장 김인종 ▷청렴조사평가과장 민성심
■ 법제처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양성철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장 오광해
■ 주택금융공사
△영업점장 전보 ▷서울남부지사장 채재현 ▷순천지사장 박형규
■ 행정자치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장혁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호 △부이사관 승진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사업과장 오정호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김종효 ▷사회통합지원과장 서기관 안정태
■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전보 ▷기획관리이사 김성문 ▷안전관리이사 박장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임용 ▷비상계획실장 김용덕
■ 서울시설공단
▷도로교통본부장 민병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신규 임용 ▷이종훈
■ 고려대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고형진
■ KDB대우증권
△신임 ▷칠곡지점장 김동주 ▷상품전략부장 강세현 ▷법무실장 이강혁 ▷IT지원부장 정학수 △전보 ▷고객센터장 김성철 ▷스마트상담센터장 박준철 ▷IB법률자문지원단장 최춘구 ▷시스템운영부장 정진늑
■ 키움증권
△전보 ▷홀세일총괄본부 본부장 박연채 전무 ▷리서치센터 센터장 박희정 상무보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장 김상구 이사 ▷투자심사팀장 조재호 차장

2천만원만 있으면

5년후 원금보장 +α까지 되는 호텔 객실당 실투자 2천만원대

강원 라마다호텔&리조트에 역대 올림픽 스타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테디베어 올림픽 파크 전시관이 오는 10월 문을 엽니다.

국내최초 원덤본사와 기술 자문 및 책임 **TSA** 약정체결!

- 업무제휴사 **고정고객 확보**
- 분양가 **9천만원** 실투자 **2천만원대**
- **3년 수익금 즉시 지급**
- **5년후 원분양가 환매보장**
- 잔금납입 즉시 이전등기 **계약즉시 수익발생**
- 국내 체인 라마다호텔 **연10일 무료이용**

관광인프라 강원랜드, 워터월드, 365 세이프타운 테마파크, 레이싱파크, 하이원 스키장, 오투리조트(스키장, 골프장) 등
교통메리트 영동선, 태백선,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 국도 31, 35, 38호선, 정선·태백 주요 관광지 리무진버스 운행
사계절수요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황지연못(낙동강발원지), 검룡소(한강발원지), 태백산 눈축제 등 365일 다채로운 축제
특급부대시설 국내 최대 야외 글램핑장, 테디베어 갤러리, 야외 레스토랑, 야외 바비큐장, 야외 수영장, 카바나존

365세이프타운 테마파크

테디베어 갤러리운영 컨벤션 (1, 2, 3층)

테디베어 MOU

여행사 MOU

수익안심 보장제도
- 계약즉시 수익지급
- 5년 후 원분양가＋α로 환매 조건

청약 방법
· 외환은행 630-009601-061 · 청약금 :100만원
· 예금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됨.

분양 문의 02)771-5000

| 운영사 (주)산하HM | 분양대금관리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주)도모건축 | 시행사 (주)월드스포츠

※생보부동산신탁은 상기 '수익금 지급 및 관리'와 무관합니다.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10 외 ■대지면적 : 7,186㎡(컨벤션 및 기타부지 제외) ■건축규모 : 15,133.58㎡(지상면적 14,186.06㎡ / 지하면적 947.52㎡)
■시설규모 : 객실 305실, 10개동(동당 30~31실) ■객실타입 : Standard 177실, Deluxe 90실, Suite 28실, 단체실 10실(총 305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